

11

November 2023
Vol.383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LUMN

별(star)에 대한 동경

COVER STORY

2023 월드피아니스트 시리즈
피아니스트 유자왕

클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시립미술관



2023
대학교향악축제
UNIVERSITY
ORCHESTRA
FESTIVAL
IN 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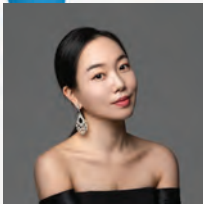
11. 18. (토) 17:00 경성대학교 (지휘: 이기균)
11. 19. (일) 17:00 동의대학교 (지휘: 윤상운)
11. 24. (금) 19:30 인제대학교 (지휘: 이석중)
11. 25. (토) 17:00 동아대학교 (지휘: 조용민)
11. 26. (일) 17:00 부산대학교 (지휘: 정병휘)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3
청년희망날개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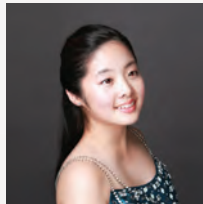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Sop. 김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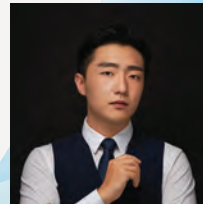
Sop. 박성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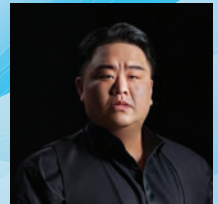
Sop. 노서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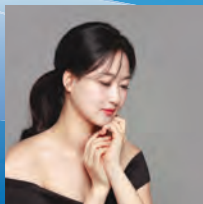
Ten. 성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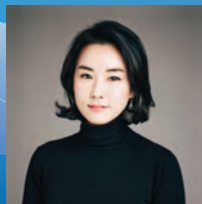
Bar. 김경한



Bar. 황동남



Pf. 이현아



Pf. 조가영



부산성악가협회

2023. 12. 2.SAT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주관



티켓 전석 2만원

예매 및 문의 (재)부산문화회관(051-607-6000, www.bscc.or.kr)

관람연령 초등학생 이상



코믹 가족마당극

효자전



2023.11.25. 토 16: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 

제90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Va. 김규현

Vn. 윤은슬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5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 지휘
오충근

W.A.Mozart

La Clemenza di Tito Overture K.621

Sinfonia Concertante for Violin and Viola in E b Major, K.364

Symphony No.35 in D Major, K.385 'Haffner'

2023. 11. 23 THU 7:30 PM SAHA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을숙도문화회관

주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특별후원 **BNK** 부산은행)

예매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예매시 20%할인)

관람료 1층 2만원, 2층 1만원

입장연령 초등학생 이상

문의 051)220-5811~4

SUN	MON	TUE	W
<p>예매 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5</p> <p>제14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14:00 대 무료/(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513-4306) 중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_허경미무용단-무무 '길을 잃다' 17:00 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강주희 플루트 리사이틀 17:00 첼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6</p>	<p>전시실</p> <p>제19회 부산국제차어올림문화제 11월 3일(금)-11월 5일(일) · 문 의 부산차문화진흥원 809-1551</p> <p>제49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월 14일(화)-12월 2일(토) · 문 의 부산미술협회 632-2400</p> <p>7</p> <p>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제41회 정기연주회 19:30 대 무료/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510-1739)</p>	<p>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p> <p>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 첼 초대/테너 강학운 성악</p>
<p>12</p> <p>음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숨과심 가을음악회' 16:00 대 7만원-5만원-3만원 부산국제예술단(010-3675-7517)</p> <p>리차드 윌트컴 장군 오페라 갈라 추모음악회 '푸른 눈의 선한 사마리안' 17:00 중 5만원-3만원/(사)부산창작오페라단 (010-3765-0917, 010-9496-2687)</p>	<p>13</p>	<p>14</p> <p>미러듀오 제2회 정기공연 19:30 첼 미러듀오(010-7566-1212)</p>	<p>제25회 남구문화예술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19:30 첼 초대/부산남구문화회</p>
<p>19</p> <p>중 2023 대학교향악축제_동의대학교 17:0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대학생예술축제주간 대학생발표전 17:00 중 부산광역시(888-5032) 제18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17:00 첼 전석 2만원/최낙주(010-4536-2351)</p>	<p>20</p>	<p>21</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예술교육공연 '재밌는 클래식 맛있는 클래식' 10:30 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 2023 부산불교합창제 18:30 중 무료/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867-0501)</p>	<p>제25회 남구문화예술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19:30 첼 초대/부산남구문화회</p>
<p>26</p> <p>중 2023 대학교향악축제_부산대학교 17:00 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대학생예술축제주간 대학생발표전 17:00 중 부산광역시(888-5032) 2023 대학생예술축제주간 대학생발표전 17:00 첼 부산광역시(888-5032)</p>	<p>27</p>	<p>28</p> <p>중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유자 왕 피아노 리사이틀' 19:30 대 13만원-10만원-8만원-6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19:30 첼 초대/김해옥(010-3859-9822)</p>	<p>2023 부산대학교 예술 19:30 대 무료/부산대학교 무용 부산시립합창단 수생생물 갈라 콘서트' 11:00 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제이스 스트링 콰르텟 연 첼 전석 2만원/Jace St</p>

ED	THU	FRI	SAT
1	2	3	4
<p>공연 '교실 밖 합창여행'</p> <p>사업팀(607-3113, 3115)</p> <p>성악아카데미 제9회 '야의 밤' 19:00</p> <p>클래스(010-9287-6350)</p>	<p>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교실 밖 합창여행' 10:30</p> <p>대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p> <p>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_김옥련발레단 '분홍신 그 男子 2030' 10:30,19:30</p> <p>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최민경 피아노 리사이틀 19:30</p> <p>챌 초대/최민경(010-9496-2687)</p>	<p>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Friendly Concert 19:30</p> <p>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줄인III' 19:30</p> <p>챌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합창단 예술교육공연 '지그재그 음악놀이' 10:30</p> <p>사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p>	<p>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Friendly Concert 17:00</p> <p>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윤효영 피아노 독주회 14:00</p> <p>챌 초대/윤효영(010-2783-8627)</p>
8	9	10	11
<p>제32회 정기연주회</p> <p>연구회(010-6552-2989)</p>	<p>(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소지로 내한공연' 19:30</p> <p>대 4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제7회 테너 허동권 독창회 19:30</p> <p>챌 허동권(010-6533-8192)</p>	<p>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19:30</p> <p>대 15만원-8만원-5만원-3만원</p> <p>솔로페라단(1544-9373)</p> <p>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_댄스 프로젝트 '에게로 '수구루지' 19:30</p> <p>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TDC양상을 정기연주회 19:30</p> <p>챌 전석 1만원/TDC양상블(010-9332-4207)</p>	<p>Turn Toward Busan '2023 평화물결' 17:00</p> <p>대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김형석' 15:00</p> <p>중 3만원-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 -Together' 15:00, 19:30</p> <p>챌 무료/(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5	16	17	18
<p>음악회 정기연주회 30</p> <p>기술회(010-9287-635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경상북도 도립국악단 교류음악회' 19:30</p> <p>대 2만원-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프라노 이은미 독창회 19:30</p> <p>챌 전석 2만원/이은미(010-8277-4746)</p>	<p>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5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와 라흐마니노프' 19:30</p> <p>대 2만원-1만5천원-1만원-5천원</p> <p>(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고신 클라비어 제4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앙상블 콘서트' 19:30</p> <p>챌 초대/고신 클라비어(010-3311-0153)</p>	<p>2023 대학교향악축제_경성대학교 17:0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3년도 청년연출자 작품제작지원 쇼케이스 13:00</p> <p>중 부산문화재단(316-7641)</p> <p>소프라노 정애린 귀국독창회 18:00</p> <p>챌 전석 1만원/정애린(010-9711-9116)</p>
2	23	24	25
	<p>부산시립합창단 제191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엘리야' 19:30</p> <p>대 2만원-1만원-5천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열쑤!' 11:00</p> <p>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p> <p>소프라노 이수진 독창회 19:30</p> <p>챌 이수진(010-2817-1910)</p>	<p>2023 대학교향악축제_인제대학교 19:3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열쑤!' 11:00</p> <p>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p> <p>2023 대학생예술축제주간 대학생발표전 19:30</p> <p>챌 부산광역시(888-5032)</p> <p>부산시립극단 실험실 프로젝트 '르 시드' 19:30</p> <p>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3 대학교향악축제_동아대학교 17:00</p> <p>대 전석 1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2023 대학생예술축제주간 대학생발표전 17:00</p> <p>중 부산광역시(888-5032)</p> <p>부산시립극단 실험실 프로젝트 '르 시드' 17:00</p> <p>사 전석 2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9	30		
<p>대학 무용학과 작품발표회</p> <p>무용학과(517-0906)</p> <p>을 위한 음악회 '뮤지컬</p> <p>사업팀(607-3113, 3115)</p> <p>주회 19:30</p> <p>ring Quartet(746-2023)</p>	<p>2023 부산광역시의회사회 '코로나19 극복 힐링 음악회' 19:30</p> <p>대 초대/부산광역시의회사회(242-8479)</p> <p>부산시립합창단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뮤지컬 갈라 콘서트' 11:00</p> <p>중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607-3113, 3115)</p> <p>카메라타첼버라이어 정기연주회 19:30</p> <p>챌 카메라타첼버라이어(010-4702-4392)</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예매</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전시실</p> <p>신라대학교 주얼리디자인학과 졸업전시회 10월 31일(화)-11월 4일(토) 전시실 2</p> <p>늘해랑 아트공예전 11월 1일(수)-11월 2일(목) 전시실 1</p> <p>반짝이는 나의 도시 11월 3일(금)-11월 12일(일) 전시실 1</p> <p>부산일요사진회 50주년 기념 전시회 11월 8일(수)-11월 11일(토) 전시실 2</p> <p>제32회 동구문화예술인협의회 회원전 11월 14일(화)-11월 18일(토) 전시실 1</p>	<p>제35회 전국사진 공모전 11월 14일(화)-11월 18일(토) 전시실 2</p> <p>제49회 전국공모 부산미술대전 11월 21일(화)-11월 25일(토) 전시실 1-2</p> <p>보령남포 명연 특별전 11월 28일(화)-12월 3일(일) 전시실 1</p> <p>아름다운 규방공예 '고운손길전' 11월 28일(화)-12월 3일(일) 전시실 2</p> <p>· 문 약: 부산시민회관 630-5212</p>	
5	6	7	8
		<p>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와 경남공고가 함께하는 For a Brighter Tomorrow 10:30 대 아르고윈드오케스트라(010-2372-2888)</p>	
12	13	14	15
<p>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전막 발레 '호두까기인형' 14:00 대 5만5천원 4만5천원 3만5천원 부산오페라시티발레단(010-9929-6626)</p> <p>연극 '집을 떠나며' 15:00 소 전석 3만원 / 등그라미그리기(1577-4868)</p>		<p>제15회 부산문화예술콘잔치 13:00 대 부산광역시문화원연합회 (554-0159, 010-5775-0618)</p>	<p>제11회 부산불교방송 가 대 부산불교방송(797-3...)</p>
19	20	21	22
		<p>제18회 100원 희망불씨 콘서트 19:00 소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853-0429)</p>	
26	27	28	29
<p>뮤지컬 '어게인 여고동창생' 13:30, 17:00 대 컬처앤아트(010-9587-6423)</p>			<p>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호두까기인형' 19:00 소 무료(선착순 예약)/복</p>

ED	THU	FRI	SAT
1	2	3	4
		<p>◆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9:30</p> <p>대 5만원·3만원(14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630-5200)</p>	<p>◆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5:00</p> <p>대 5만원·3만원(14세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630-5200)</p>
8	9	10	11
		<p>연극 '집을 떠나며' 19:30</p> <p>소 전석 3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p>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전막 발레 '호두까기인형' 14:00, 19:00</p> <p>대 5만5천원·4만5천원·3만5천원 부산오페라시티발레단(010-9929-6626)</p> <p>연극 '집을 떠나며' 15:00</p> <p>소 전석 3만원/동그라미그리기(1577-4868)</p>
5	16	17	18
<p>무천년대축제 19:00</p> <p>5120)</p>	<p>제13회 부산실버종합예술제 13:30</p> <p>대 (사)대한노인협회 부산광역시지회(961-0119)</p>	<p>여성문화회관 '예술의 밤' 19:30</p> <p>대 여성문화회관 예술봉사단(320-8341)</p>	<p>◆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가족무용극 '여우와 돌고래' 15:00</p> <p>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시민회관(630-5200)</p>
2	23	24	25
		<p>뮤지컬 '어게인 여고동창생' 19:00</p> <p>대 컬처앤아트(010-9587-6423)</p> <p>2023년 동구 여성 및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19:00</p> <p>소 부산광역시 동구청(440-4065)</p>	<p>뮤지컬 '어게인 여고동창생' 13:30, 17:00</p> <p>대 컬처앤아트(010-9587-6423)</p> <p>엑스포 코미디 페스티벌 14:00</p> <p>소 무료/마루컴벤션(010-4143-1139)</p>
9	30		
<p>년 기념 배시시 명품극장</p> <p>부산시민회관(630-5200)</p>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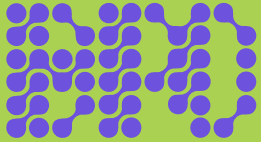


605

Prokofiev and Rachmaninov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1962

Soo-Yeoul Choi
Artistic Director &
Chief Conductor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지휘 샤오치아 퉁
바이올린 백주영

프로코피예프 /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 / 교향곡 제2번

2023년 11월 17일 금요일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티켓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문의 051-607-6000(ARS1번)



부산시립교향악단

www.bscc.or.kr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CONTENTS

11

월간문화예술정보지



20



24



30

10 Column

별(star)에 대한 동경

12 Cover Story 1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_피아니스트 유자 왕

16 Cover Story 2

2023 대학교향악 축제

20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㉘

그림에서 찾는 아름다운 한국 표범의 흔적

24 세계의 콘서트홀 ㉚

데이비드 게펜 홀(David Geffen Hall)과

음향 리노베이션

28 서울통신원

광화문의 두 '카르멘', 좀더 진보적일 수 없었을까

30 골목에서 만나다_생활 속 문화공간

부산시립미술관

34 Preview

42 Review

46 Program Guide

62 New Book

63 BSCC News

예술의 조대 November 2023 Vol.383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일 2023년 10월 25일

발행인 이정필 편집인 이기중 홍보팀장 김명숙 편집위원 김성필, 박소윤, 박진홍, 박창희, 이정호, 최찬열 편집장 정복업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별^{star}에 대한 동경

이정호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교수, 국악작곡가



어린 시절 역사를 좋아하고 위인전을 즐겨 읽던 나는 자연스럽게 위인전 속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스피커를 통해 나온 빈 소년합창단이 부른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의 <울게 하소서>라는 곡은 어린 나의 온몸을 휘감았고, 그 뒤로 내 삶의 길은 음악으로 정해졌다. 음악으로 정해졌을 때 늘 동경해오던 위인전 속 주인공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음악을 하는 위인전의 주인공 대부분은 모차르트, 베토벤, 흥난파, 박태준 등 작곡가였기에 나의 꿈도 작곡가로 정했다. 그러다가 국악작곡가 이준호 선생님의 국악관현악 작품 <축제>를 듣고 매료되었으며, '국악작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현재를 살아가며 전통을 미래로 만드는 일, 우리 음악을 이어나가고픈 사명감이 생겼다.

2018년 KBS국악관현악단으로부터 연주시간 70분에 달하는 합창을 포함한 국악관현악곡을 위촉받았다. 보통 국악에서 가장 큰 편성인 국악관현악곡 한 곡의 연주시간이 15분 내외이기에 파격적인 제안이었고, 나는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제1번'으로 명명하고 제목을 <별>이라 하였다.

여기서 <별>이라는 제목은 1995년도 영화 '불멸의 연인' 속 한 장면에서 출발한다. 극 중 한 소년이 어디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배경에는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긴박하게 흐르고 있다. 그러다가 그 소년이 당도한 곳은 어느 호숫가이고, 이내 상의를 탈의하고 그 호수 속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 그와 동시에 <합창>의 주제 선율이 흐르면서 화면은 하늘을

향해 물 위에 누워있는 소년을 마치 하늘에서 보듯 정면으로 잡는다. 그리고 점점 멀어져 가며 호수 전체를 보여주는데, 호수에 비친 무수히 많은 별들은 마치 소년이 호수가 아닌 밤하늘 위에 떠있는 듯한 장면을 연출한다.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좀 아웃이 되며 마침내 그 소년은 무수히 많은 별 중에 하나가 된다.

별에 대한 동경은 평소에 가지던 우주에 대한 호기심으로부터 이어졌으며, 그 신비하고도 장엄한 우주의 느낌과 호기심을 국악관현악이라는 그릇에 담기 시작하였다. 우주에 관한 여러 서적을 쌓아놓고 탐독하며 영감을 얻으며, '과학으로서의 우주', '인간의 삶으로서의 우주'를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공간에 따라 시간이 다르게 흐른다는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이론을 시간적 예술인 음악 속에서 소리와 음향적 공간적 표현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고민하였고, 이와 동시에 인간의 삶으로서 우리는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어떤 의미를 남기며 이 세계에 나오고, 또한 사라지는 것일까? 끝없는 우주의 깊이 속에서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고 사라지는 인간의 일생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여기서 잠시 국악관현악 편성에 대해 설명하자면,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가 다함께 연주하는 편성인데, 보통 그 규모는 4~60명 정도가 된다. 가장 높은 음역을 맡고 있는 소금, 그 바로 아래에서 힘 있는 '청'소리를 들려주는 대금, 전체 음악의 뼈대가 되는 피리와 태평소, 저음을 담당하는 대피리와 저피리가 관악기에 속하고, 현의 마찰을 이용한 찰현악기에는 부드러운 음색의 해금, 거칠지만 다양한 표현의 폭을 가진 소아쟁과 대아쟁, 그리고 줄을 튕겨서 연주하는 타현악기인 가야금, 거문고가 편성되고 타악기에는 대북, 장구, 징, 팽과리, 북 등이 연주한다.

공간과 시간, 이 우주 속 인간의 일생과 작별을 표현한 '국악관현악을 위한 교향곡 제1번 <별>'의 전체 4악장 중 1악장은 우주가 만들어지는 음악적 창세기라 할 수 있는데, 인간의 탄생을

빅뱅에 비유해 웅장하게 전개되고 이후 별들이 이루는 잔잔한 형상을 그림 그리듯이 그려보았다. 여기서 특히 <수제천>이 잠시 등장하며 특수상대성이론을 상징화하는데, <수제천>은 7세기 중엽 이전부터 불리었다는 백제의 노래 <정읍사>에서 유래한 전통 기악곡이다. 그 노래는 정읍현에 사는 여인이 행상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부른 노래로 '달하 노피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취오시라'로 시작하는데, 지금의 말로 바꾸면 '달아 높이 떠서 멀리 비추어 우리 남편이 돌아올 길을 밝혀 주소서'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합창 가사를 위해 인도의 시인 타고르(1861~1941)의 시집 <기탄잘리>에 담긴 시구들을 가사로 원용하였다. 무명의 인도 시인이었던 타고르에게 동양 최초의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시집 <기탄잘리>는 103편으로 된 산문시로 신, 고독, 사랑, 삶, 여행을 노래한다. 기탄잘리의 '기트(git)'는 노래이고, '안잘리(anjali)'는 두 손 모아 바친다는 의미로, 기탄잘리는 '노래의 바침'을 뜻한다.

이 곡을 작곡하며 자료수집 차원에서 읽었던 여러 책들 중 하나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에는 이러한 글이 담겨 있다.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광대한 코스모스 앞에서 60억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는 무한한 우주 공간 한구석에 박혀있는 창백한 점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인류는 코스모스라는 심연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지지만 감히 심연의 깊이와 폭을 재려고 노력해 왔다.

이 작은 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갈지 스스로가 정하게 된다. <별> 1악장에 쓰여진 <기탄잘리>의 시 중 한 구절을 소개하며 글을 마친다.

*나 이곳을 떠날 때, 이것이 나의 작별의 말이 되게 하소서.
내가 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2 0 2 3 W O R L D P I A N I S T S S E R I E S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유자 왕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
※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최대 2매),
초·중·고·대학생(본인만)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1세기 건반의 여제, 피아니스트 유자 왕이 부산을 찾는다. ‘피아니스트들의 피아니스트’ 안드라스 쉬프에 이어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두 번째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는 유자 왕은 과물같은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 객석의 혼을 빼놓는 무대 매너로 지난해 첫 내한 리사이틀 이후 공연계 섭외 1순위로 등극하며, 트렌드를 주도하는 독보적인 영향력으로 전 세계 음악팬들을 사로잡고 있다. 특히 유자 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의 패션은 ‘클래식 연주자스러움’을 벗어나 본인만의 아름다움과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기업들의 앰버서더로도 활동하며 21세기 문화적 아이콘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시선을 사로잡는 그의 패션만큼이나 거침없는 파격적인 무대와 우아하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연주로 유자 왕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파격적인 무대로 클래식의 틀을 깨다

중국 베이징의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난 유자 왕은 어린 시절 중국에서 피아노를 공부했고, 이후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가 커蒂斯 음악원에서 게리 그래프먼을 사사했다. 2007년 마르타 아르헤리치를 대신하여 샤를 뤼트와가 이끄는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후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2년 후에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고 이후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일련의 공연과 녹음으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들 사이에서 입지를 굳혔다. 2017년 뮤지컬 아메리카로부터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하는 LA필하모닉과 존 애덤스의 ‘Must the Devil Have all the Good Tunes?’를 세계 최초로 녹음하며 이 음반으로 오페라 클래식 상을 수상했다.

Y U J A W A N G P I A N O R E C I T A L



© Norbert Kniat

세계적으로 명망 있는 지휘자, 음악가, 앙상블과 함께 공연하고 있는 그녀는 기교뿐 아니라 자연스럽고 활기찬 연주로 유명하다. 유자 왕은 <뉴욕타임스>를 통해 “나는 모든 프로그램이 고유의 생명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고, 현재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표현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기술과 카리스마는 최근 카네기홀에서 지휘자 야니크 네제-세갱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선보인 라흐마니노프 마라톤 공연에서 확실하게 증명되었다.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적인 공연에서 유자 왕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4개의 전곡 연주와 더불어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랩소디’까지 연달아 연주하는 기록적인 무대를 선보였으며, 이날 공연장 주변에는 티켓을 구하기 위해 줄지어 선 관객들로 그야말로 진풍경을 자아내기도 했다.

지난 시즌, 북미, 유럽, 아시아 지역의 세계적인 공연장에서 대망의 국제 리사이틀 투어를 성황리에 끝마친 유자 왕은 베토벤, 리게티, 쇤베르크를 포함한 광범위한 프로그램으로 그녀의 재능, 기술적 능력, 뛰어난 예술성을 다시금 청중들에게 전하며, 클래식 음악계에 위치한 그녀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각인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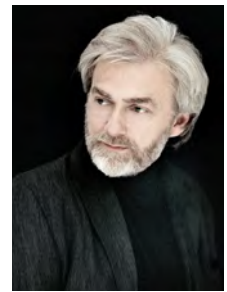
베일링 프로그램에 대한 관객들의 기대

모든 음악 작품은 마치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즉흥적인 감정에 의해 매 순간 새롭게 재탄생합니다. 음악이 제게 선사하는 경이로움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모든 감각을 발휘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꺼이 저의 즉흥적인 여정을 함께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자 왕

유자 왕은 이번 무대에서 연주 곡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베일링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난다. 작곡가, 시대, 스타일 등 정해진 틀 안에서 감상하기 보다는 관객들이 음악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즐겼으면 하는 유자 왕의 의견에 따라 연주 프로그램은 당일 공개될 예정이다. 유자 왕은 지난해 가진 첫 내한 리사이틀에서도 같은 형식의 즉흥적인 무대와 10곡 이상 앙코르 곡을 연주하는 파격으로 한국 관객들을 매료시킨 바 있다.

시리즈 마지막 주인공은 크리스티안 짐머만

부산에서는 좀처럼 만날 수 없었던 거장들의 특별한 무대로 많은 박수를 받았던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마지막 주인공은 ‘건반 위의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짐머만으로, 12월 2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



© Felix Brode / DG

유연한 감정의 조절과 아름다운 음색으로 수십 년간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는 그는 2019년 BBC 매거진에서 발표한 역사상 최고의 피아니스트 순위에서도 11위에 오르며 날다른 그의 위상을 입증한 바 있다. 특히 짐머만은 지난해 내한공연에서 서울에서만 무려 3회의 공연을 전석 매진시키며 국내 관객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공연에 대한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기만 하다.

2023 World
PIANISTS

World EXPO 2030
BUSAN, KOREA

Yuja Wang



P I A N O R E C I T A L

유자 왕 피아노 리사이틀

주최  부산문화회관  부산일보사 부산MBC

주관  mast media

티켓 R석 13만원 | S석 10만원 | A석 8만원 | B 6만원

예매  부산문화회관  interpark 티켓

문의 051-607-6000(ARS 1번)

2023. 11. 28 TUE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K-클래식, 미래를 두드리다

2023 대학교향악축제

일시. 11월 18일(토)-19일(일) 오후 5:00,
24일(금) 오후 7:30,
25일(토)-26일(일) 오후 5: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
(학생,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11.18(토) 17:00 경성대학교(지휘/이기균)
11.19(일) 17:00 동의대학교(지휘/윤상운)
11.24(금) 19:30 인제대학교(지휘/이석중)
11.25(토) 17:00 동아대학교(지휘/조용민)
11.26(일) 17:00 부산대학교(지휘/정병휘)

지역 예술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2023 대학교향악축제’가 올해 부산문화회관에서 첫 선을 보인다.

이번 ‘2023 대학교향악축제’는 지역 예술대학의 잇따른 통폐합으로 미래를 이어나갈 청년 예술인들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는 요즘, 공공극장과 대학이 힘을 모아 청년예술인들의 성장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경성대학교와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지역의 5개 대학 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지역 청년예술인 성장 및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기획, 해마다 그 역할을 확대해오고 있다.

젊음과 열정을 노래하다

‘2023 대학교향악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주인공은 경성대학교로, 11월 18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관현악 전공자들로 구성된 경성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부산과 경남지역의 대학 음악의 발전을 이끌어 온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로, 이곳을 거쳐간 전공자들이 지역의 연주자로 활동하며 경성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명성을 빛내고 있다. 경성대학교 이기균 교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드보르작 교향곡 제8번을 비롯해 오창석(성악, 4학년), 조예림(플루트, 4학년), 강재정(플루트, 3학년), 박주연(피아노, 3학년)의 협연으로 벨리니 오페라 ‘카롤레티가와 몬테기카’ 중 ‘이 칼로써 복수를 하리라’, 도플러 ‘두 대의 플루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리콜레토 환상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제5번 ‘황제’ 3악장을 들려준다.

11월 19일에는 동의대학교 윤상운 교수가 지휘하는 동의대학교 오케스트라로, 드보르작 교향곡 제5번과 권예진(비올라, 3학년), 이하영(피아노, 4학년), 한동화(피아노, 4학년)의 협연으로 베버의 ‘안단테와 헝가리풍 론도’, 쇼팽 ‘피아노 협주곡 제1번’ 1악장,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 3악장을 연주한다. 동의대학교는 1981년 음악학과가 설립된 후 1984년부터 매년 정기연주회와 세부 전공별 연주 발표회를 통해 학생들에게 연주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4일에는 인제대학교 이석중 교수의 지휘로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과 박수현(플루트, 4학년), 현지훈(피아노, 4학년), 이부영(바이올린, 박사과정), 김하빈(첼로, 석사과정)의 협연으로 라이네케 ‘플루트 협주곡 라장조’ 3악장, 베토벤 ‘삼중협주곡 다장조’와 더불어 작곡 전

공자 전지현(4학년)의 창작곡 ‘개화’를 들려준다. 인제대학교는 2003년 음악공연예술학과가 설립된 후 지금까지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며 우수 학생들을 양성해오고 있다.

11월 25일에는 동아대학교 오케스트라의 무대로, 조용민 교수의 지휘로 베토벤 ‘교향곡 제7번’과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 1악장,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 ‘복수하리, 오 복수하리’,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제2번’ 1악장을 연주한다. 이날 협연자로 최예은(바이올린, 4학년), 김성균(성악, 4학년), 윤아현(피아노, 4학년)이 무대에 선다. 동아대학교 음악학과는 1966년 12월에 세워진 부산 최초의 음악대학으로, 예술성과 창의성을 두루 겸비한 음악 인재를 양성해오고 있다.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26일에는 정병희 교수가 지휘하는 부산대학교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선다. 한운지(바이올린, 4학년), 박채원(소프라노, 4학년), 박현(피아노, 4학년)의 협연으로 4학년 김우진의 창작곡 ‘Karman Line for Orchestra’, 프로코피예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사단조’ 3악장,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이상하다! 이상해!... 아, 그이인가... 언제나 자유롭게’,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제2번 바장조’ 1악장 및 3악장, 그리고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제2번 마단조 작품 27’을 들려준다. 영남지역 국립대학으로 가장 오래된 전통을 사랑하는 부산대학교는 국내 예술대학 중 가장 큰 규모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K-클래식의 미래를 응원하다

이번 ‘2023 대학교향악축제’에서는 출연학교가 공연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재)부산문화회관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펼친다. 우선 공연장 대관을 무상 지원하는 한편, 축제의 모든 진행과 운영에서부터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총괄을 도맡아 하며, 객원 단원 출연 및 일부 공연료를 지원한다. 특히 참여 학생들이 전문 연주자로서 프로 의식을 가지고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문 공연장의 운영인력이 함께 하며, 전공자 감소로 인한 오케스트라의 파트별 불균형과 이에 따른 연주 프로그램 구성의 어려움을 공공극장과 대학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보완함으로써 보다 수준높은 무대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교향악축제’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부산의 대표적인 청년예술인들의 축제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경성대학교



동의대학교



인제대학교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재)부산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대학교향악축제 통합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기를

박진홍 음악평론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었던 대학교향악축제가 (재)부산문화회관 주최로 다시 시작된다. 대학교향악축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던 대학오케스트라축제와 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하는 교향악축제를 모티브로 2001년, 부산음악협회가 주최하고 경성대,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신라대, 인제대 등 지역 대학의 음악학과가 참여해 왔다. 2013년부터는 부산음협과 을숙도문화회관이 공동 주최로 운영하였고, 2015년부터는 을숙도문화회관이 단독으로 주최하였으나 팬데믹으로 지난 3년간 중단된 상태였다.

2023 대학교향악축제는 11월 18일 경성대학교를 시작으로 19일 동의대학교, 24일 인제대학교, 25일 동아대학교, 26일 부산대학교가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연주 무대를 갖는다. 이번 대학교향악축제는 서곡, 협주곡 그리고 교향곡으로 연주 포맷을 통일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제대와 부산대가 서곡 대신 작곡 전공 학생의 작품을 연주한다는 것이다. 작곡 전공자가 점점 줄어드는 부산의 현실이기에 그들의 작품을 선보일 기회가 마련된 것은 매우 기꺼운 일이다.

이번 대학교향악축제는 부산시가 추진하는 2023 대학 예술 축제주간의 하나로 열린다. 서울 집중화 현상이 점차 심해지면서 지역 대학의 예술 전공 학과가 잇따라 폐

과하고, 남아 있는 학과들도 학생 유치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연히 지역의 기초 예술 문화가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서울 집중화 현상은 더욱 심해지고만 있다. 그래서 부산시는 지역 예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전략의 하나로 그동안 분야별로 진행되던 대학 무용 커뮤니티 예술축제, 대학교향악축제, 대학 연극축전, 디자인 콘텐츠 전시회인 디그리쇼 등을 한데 통합하여 운영한다고 밝히고 있다.

다양한 무대 경험은 연주 기량뿐만 아니라 행사의 운영 능력, 기획력 등 여러 면에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지역 음악 문화의 발전을 견인하게 된다. 하지만 한 번 연주에 만만치 않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들에게 많은 무대 경험을 제공해 주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기성 음악인들이 힘을 모아 앞으로 지역 음악 문화의 저변이 될 학생들에게 연주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었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당시 많은 음악인들이 대학교향악축제가 대학 교향악단 뿐만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음악학도들이 부산시향과 지역의 여러 민간 교향악단을 발전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매년 대학 교향악단이 젊음을 담은 음악으로 공연장을 가득 메우는 장면은 상상만 해도 싱그럽고 뿌듯하다. 하지만 20여 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늘 아쉬움으로 남았다. 우선 학교별로 준비한 프로그램을 각각 정해진 날짜에 연



이기균



조용민



윤상운



정병휘



이석중

(재)부산문화회관이 주최하는 '2023 대학교향악축제'에 경성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대학교, 인제대학교 등 지역의 5개 대학 오케스트라가 참여한다. (사진은 각 대학 오케스트라 지휘자, 대학명 가나다순)

주를 하다 보니 학교별 정기연주회의 성격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가족과 지인들이 객석을 찾았지만 대학교향악축제에 참여하는 다른 학교 학생이나 일반 관객의 관람이 거의 없었다. 2013년부터 부산음협과 을숙도문화회관이 공동주최를 하면서 장소를 을숙도문화회관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음악애호가들의 관심 부족과 공연장 접근성의 문제로 관객은 더욱 줄었다.

또 다른 문제는 음악대학들이 오보에나 바순, 트럼펫, 트롬본, 호른, 튜바 등의 관악기들, 이른바 희귀 악기의 전공자가 점점 줄어들어 오케스트라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악기들은 전공하는 학생이 없는데, 가뭄에 단비처럼 전공 학생이 생긴다 하더라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서울로 진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기성 연주자들을 객원으로 초청하여 연주를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대학교향악축제는 동아대와 동의대 단 2곳만 참가했는데, 당시 국제신문을 보면 음악학과의 정원수 감소와 관악기 및 타악기 전공 학생 유치 실패로 인해 대학 교향악단 구성이 어렵다는 기사도 볼 수가 있다.

올해부터 대학교향악축제의 주최를 맡은 (재)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 대학교향악축제를 통해 지역 음악 및 예술 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연주 및 창작 활동 활성화로 청년 예술인들의 지속가능한 창작 기반을 확대하며 공연장과 학교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확장 가능성을 기대

하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묶어만 놓는 행사라면 새롭게 주최를 바꾸어 시작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힘들 것이다. 행사의 구성원들이 소통하고 협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음악축제로 거듭나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학교별이라는 벽을 허물어야 한다. 학교별 단독 무대를 갖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여년을 같은 방식으로, 그리고 다른 지역의 관현악축제들도 하는 동일한 방식의 행사 운영을 탈피해야 한다. 참가하는 대학 교향악단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연주를 관람하며 평가하거나 학교라는 벽을 허물고 같은 무대에서 연주하며 졸업 이후 다양한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무대를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대학 예술 축제주간 역시 장르간 통합을 통해 각 예술 무대의 나열이 아닌 공유와 소통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역 예술 문화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팬데믹으로 잠시 잊혀졌던 대학교향악축제가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재)부산문화회관이기에 앞으로 바람직한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또 많은 음악애호가들이 대학교향악축제를 찾아 앞으로 우리 부산의 음악 문화를 이끌 갈 인재들을 격려해 주기를 바란다.

그림에서 찾는 아름다운 한국 표범의 흔적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공기가 빠르게 차가워진다. 여름이 더우면 겨울의 추위가 더 심하다는 말에, 이번 겨울도 마냥 걱정이 된다. 그리고 추운 바람이 불면 옷장 깊숙이 잠자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꺼낸다. 합성섬유의 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온열기구가 구비되어 있는 현재와 달리, 과거 조상들은 온돌마루에서 몸을 녹이고 따뜻한 솜이불과 털가죽 외투를 입었다. 특히 고관대작들은 자신의 용맹함이나 권위를 상징하는 의미로 호랑이와 같은 맹수의 털을 걸쳤다. 하지만 맹수의 털은 그저 추위만을 막는 것은 아니었다.

서양에서처럼 맹수의 털은 높은 지위와 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더 붙어 ‘벽사(辟邪) 즉 액운을 막는 역할도 했다. 그래서 비록 겨울이 아니더라도 맹수의 털가죽은 장식이 되기도 했고, 혼례를 하는 신부의 가마 뚜껑에 덮기도 했다. 또한 왕실에서는 표범무늬 양탄자를 갖고 있기도 했다.^[도판 1]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런데 옛 그림을 보다 보면, 줄무늬가 두드러지는 호랑이가 아닌, 검은 눈송이 같은 표범의 가죽도 종종 보인다.

그런데 실제 한반도에도 표범이 살았다고 한다. 단지 1970년대 창경원에 있던 마지막 표범 이후로는 우리땅에서는 사라졌다. 대신 러시아의 아무르 강 유역에는 아직 표범이 적은 수이지만 존재한다고 한다. 날쌔고 길다란 몸을 자랑하는 아프리카 표범보다는 작고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는 이 표범은 아무르 표범이다.^[도판 2] 옛 시절에는 아무르강 유역부터 한반도



1 <오얏꽃무늬를 수놓은 표범 양탄자>, 구한말, 표피와 자수, 240×574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 아무르 표범



3 작자미상, <호피장막도>, 1800년대, 종이에 채색
128×355cm, 삼성미술관 리움 소장

까지 표범들은 넓은 지역에 호랑이와 함께 살았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우리의 산천이 변했듯, 호랑이와 함께 표범도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렇게 우리의 기억에서도 잊혔지만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이 땅에 살았음을 생각해보게 한다.

귀신을 쫓을뻔더러 아름답기까지 하다

조선 후기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호피장막도> [도판 3]에는 서안과 책장이 중앙에 위치해있다. 서안 위에는 여러권의 책이 있고 안경도 놓여있다. 또한 문방사우들이 주변에 놓여있고, 고풍스러운 청동기와 향아리, 공작의 꼬리, 부채 등 선비의 서재에 있을 법한 물



4 작자미상, <호피도 8곡병>, 조선, 종이에 채색, 60.3×41cm(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건들과 함께 주인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진귀한 물건이 가득하다. 조선 후기부터 유행했던 <책가도>의 일종으로 방을 꾸미면서 예술에 대한 안목과 학식, 그리고 부의 높음을 과시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런데 안을 들여다보게 되는 서재 주변에는 도너츠 모양의 둥근 원들과 털이 나 있는 동물 가죽이 장막이 쳐져 있다. 제목이 ‘호피’이기에 호랑이 가죽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볼수록 호랑이보다는 표범에 가깝다. 호랑이는 명확한 줄무늬로 잘 알려져 있다면, 둥근 점박이는 표범의 털과 유사하다. 사실 이 그림 속 장막은 표범의 가죽이 맞다. 그렇기에 ‘표피’라 써야 할 듯하지만, 표범 역시 호랑이와 같은 ‘범’으로 보았던 조선에서는 같은 ‘호피’로 칭하였다. 비록 같은 이름을 사용하지만, 표범 무늬는 현대에도 지속적으로 사랑받을 만큼 아름답다. 그렇기에 표범 무늬를 사용한 그림들은 꽤 현대적인 미감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흥미롭게도 다른 형상없이 표범가죽무늬만을 그린 병풍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8폭짜리 병풍^[도판 4]에는 표범의 가죽을 펼친 듯한 화면을 각 폭에 붙였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각 화면의 무늬가 저마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마다 원의 분포와 미세한 형태, 크기 등이 달라서, 동일한 그림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 저마다 다른 가죽을 붙인 듯한 느낌을 준다. 더불어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 표범의 털처럼 가는 선이 켜켜이 모여 그려져 있고, 그 선들이 모여서 검은 점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에 부드러운 촉감이 느껴질 만큼 매우 사실적이다.

옛 그림들에 수묵을 통한 문인의 기개를 표현하거나 도식화된 장식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밀한 필치를 통한 사실적인 묘사도 가능했음을 또 한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주로 전문적인 미술교육을 받았던 도화서에서 주로 그려졌다. 단원 김홍도가 함께 그린 <송하맹호도>^[도판 5] 속 호랑이 역시 터럭까지도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진다. 김홍도가 정조 대에 도화서를 대표하던 화원임을 감안하면, 그 만큼은 아니더라도 화원들의 섬세한 필치를 가늠해볼 수 있다.

이렇게 사실적이면서도 현대의 미감에도 쳐지지 않는 이러한



5 김홍도, 이인문, <송하맹호도>, 1745년, 1806년, 비단에 채색, 90.4×43.8cm 호암미술관 소장

※ 김홍도가 호랑이를 그린 것은 확실하나, 소나무를 그린 사람에 대해서는 스승인 강세황이라 여겨져왔다. 그렇지만 최근 오른편 상단에 소나무를 그린 사람 이름이 지워졌다는 연구에 따라, 김홍도의 친구이자 소나무 그림으로 잘 알려져있는 이인문이 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소나무 아래에 호랑이가 서있는 이러한 그림은 반복해서 많이 그려져 온 소재이며, 이 그림은 두 친구의 우정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6

6 작자미상, <까치와 호랑이>, 조선, 종이에 수묵과 담채, 56.5×93cm, 안양박물관 소장

표범무늬 그림을 보노라면, 당시 이 병풍을 놓고 지냈을 사대부의 멋들어짐도 가히 상상해볼 수 있다. 이렇듯 표범무늬는 그림으로 표현해도 아름답기에 즐겨 그려진 소재였다. 더불어 앞서 말했듯 맹수의 털은 귀신과 액운을 쫓는 벽사의 기능까지 했으니, 아름다움과 기능을 두루 갖추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호랑이처럼 표범도 벽사의 의미로 민화에서 까치와 짝을 이루기도 했다.^[도판 6] 호랑이와 까치 도상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조선 민화에서 독특하게 그려지는 도상이다. 다소 바보스러운 맹수에 대비되는 맹랑한 까치의 모습으로

민중의 해학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혹은 까치는 새롭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호랑이는 액운을 막아준다고 보기도 한다. 민화학자 김호연은 호랑이 그림으로 벽사의 의미를 한 것은 불교나 도교 등 종교와 상관없이 무속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세상을 떠도는 잡귀를 막을 수 있는 의미로 호랑이를 그렸다는 것이다.

어떤 의미가 되었든 까치와 호랑이는 그 소재만이 유사할 뿐 다양한 형태와 구성, 색으로 표현되어 왔다. 그리고 표범의 가죽을 호피라고 통용하듯, <호작도> 역시 호랑이 대신 표범으로 그려지기도 했다. 사실 무늬의 차이일 뿐 그 의미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고 옛 선조들은 생각했던 것 같다. 그렇기에 그리는 사람이 호랑이와 같은 줄무늬를 좋아하는지 혹은 표범의 점박이를 좋아하는 지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비교적 그 수가 적게 그려지는 표범 무늬가 더욱 신선하고 멋있게 보이기도 한다.

지금은 잊혀진 한국의 표범을 상상하다

표범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아프리카 초원을 달리는 늘씬한 동물을 생각할 것이다. 우리 산천에도 동그란 얼굴이지만 사나웠던 표범이 달리면서 생활했다는 것이 쉽게 상상이 되진 않는다. 그렇지만 기록에 보면 호랑이를 잡을 때 표범도 잡았다고 하며, 호랑이가 가죽만큼 표범 가죽에 대한 수요도 컸다. 하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호랑이처럼 표범 역시 사라져버렸다. 그렇기에 현재 멸종 위기종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유전자 지도연구를 통해서 한반도에 다시 표범이 살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물론 옛 시절처럼 산천을 표범이 뛰어다니는 것은 위험하기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지만 분명 우리 조상들에게 호랑이나 까치만큼 낯설지 않은 동물이었기에 예술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표범’에 대해 상상해보고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에 의해 파괴되어 버린 자연과 우리의 산천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해본다. 그리고 우리 땅에 함께 했지만 잃어버린 생명에 대해, 잊어버린 가치에 대해 숙고해볼 수 있다.

데이비드 게펜 홀(David Geffen Hall)과 음향 리노베이션

글, 사진_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데이비드 게펜 홀(David Geffen Hall)은 뉴욕 맨해튼 어퍼 웨스트 사이드의 링컨 센터에 있는 콘서트 홀이다. 1962년에 개관하였으며,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New York Philharmonic Orchestra)가 상주하고 있다.

링컨 센터를 계획한 여러 명의 건축가 중 막스 아브라모비츠(Max Abramovitz)가 콘서트홀을 디자인했다. 이 홀의 처음 이름은 필하모닉 홀(Philharmonic Hall)이었지만, 1973년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 당시 1,050만 달러를 후원한 자선가 에버리 피셔(Avery Fisher)를 기리기 위해 에버리 피셔 홀(Avery Fisher Hall)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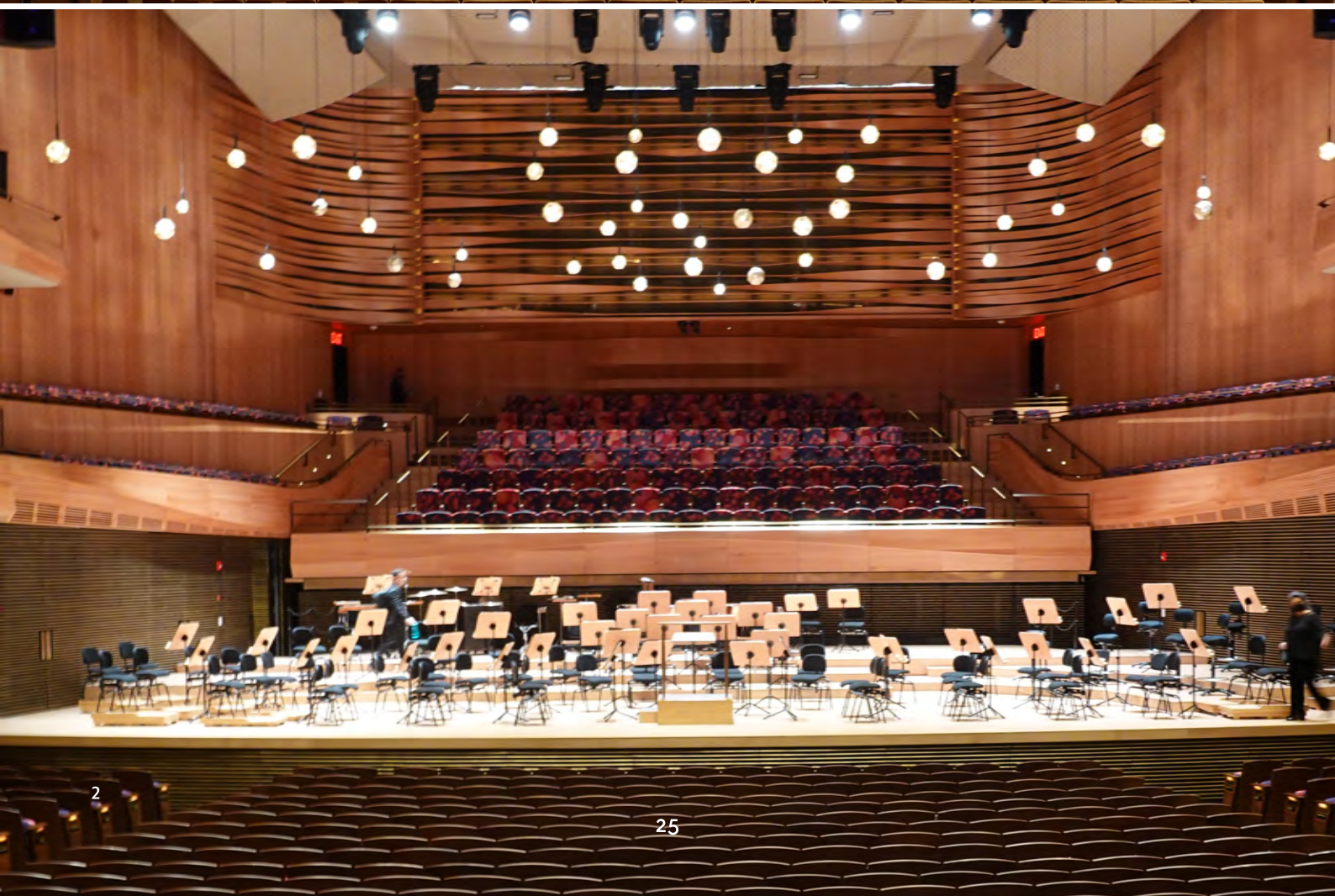
2014년 11월 링컨 센터는 에버리 피셔 홀을 개조하기 위한 5억 달러 기금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명명권이 최고 입찰자에게 판매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드림웍스(Dream Works)의 공동 창업자이자 게펜 레코드의 경영자인 데이비드 게펜(David Geffen)이 링컨 센터에 1억 달러를 기부한 이후 현재는 데이비드 게펜 홀로 바뀌게 되었다. 당시 피셔의 세 자녀들은 1,500만 달러를 되돌려 받는 것으로 이 거래에 동의했다. 필자도 꽤 오랫동안 에버리 피셔 홀로 이 콘서트홀을 기억하고 있지만, 현재의 이름은 데이비드 게펜 홀이다.

음향(Acoustics)

처음 공사를 맡았던 건축가들은 BBN(Bolt, Beranek and Newman)의 음향 컨설팅 부서를 고용하여 홀의 원래 내부 음향을 설계했다. 음향학자들은 좁은 간격의 평행한 측면을 갖춘 2,400석의 '슈 박스(Shoe Box)' 디자인을 권장했다. 이는 음향학적으로 호평을 받은 보스톤의 심포니 홀과 모양이 유사하다. 링컨 센터 관계자들은 처음에 권고 사항에 동의했고, BBN은 일련의 설계 사양과 권장 사양을 제공했다. 그러나 뉴욕 헤럴드 트리뷴(New York Herald Tribune)의 비평가들은 새 홀의 좌석 수를 늘리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고 설계 단계 후반에 비평가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확장하여 BBN의 음향 작업 대부분이 무효화 되었다. BBN 엔지니어들은 링컨 센터 경영진에게 홀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들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될지는 예측할 수 없었다. 비극의 시작이었다.

링컨 센터 내 데이비드 게펜 홀의 역사는 음향 리노베이션의 역사이기도 한데 1962년 오픈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되었던 음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6년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거쳤다.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으며, 1992년 소규모의 음향 개선 공사를 하게 되지만 역시나 문제가 바로 잡히지는 않았다.

1, 2 데이비드 게펜 홀의 리노베이션 이전(2019년 2월)과 이후(2023년 10월)



홀의 내부를 철거하고, 파이프 오르간을 캘리포니아의 대성당에 판매하고, 외부 뼈대와 외관을 그대로 둔 채 새 콘서트 홀을 재건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음향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지속되었다. 2,700석의 좌석 수는 공간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고, 이는 측벽 간의 공간이 너무 떨어져서 되어 중앙 좌석에 초기 반사음을 제공할 수 없었다. 초기 반사를 강화해서 잔향 시간을 늘리려 했지만, 여전히 천장 반사판은 높았고, 이 때문에 저음역이 취약했다. 급기야 뉴욕 필하모닉의 단원들은 애버리 피셔 홀(Avery Fisher Hall)을 ‘A Very Fishy Hall’, 매우 이상한 홀이라는 조롱적인 농담을 주고 받기도 했다. 홀의 음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로 인해 결국 뉴욕 필하모닉은 2003년에 카네기 홀과의 합병을 고려하게 되었고, 시즌 연주의 상당 수를 카네기 홀에서 열기로 했지만, 결렬되었다.

이 무렵 링컨 센터는 애버리 피셔 홀의 음향 개선 프로젝트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고, 같은 해 3개의 건축 회사를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그리고 2009년에 개조 공사를 거칠 것이라고 발표했고,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Norman Foster)가 선정되었다. 하지만 그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임하게 된다. 몇 차례의 연기 끝에 2012년 공사 시작 날짜는 2017년으로 연기됨을 발표하지만 이마저도 실행되지 않는다.

최종적으로는 2019년 12월 데이비드 게펜 홀의 리노베이션 계획이 마침내 진행되게 되었다. 건물 외벽은 그대로 남겨두고 홀의 음향 개선, 고객 편의시설 현대화, 콘서트 홀 객석의 재구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 500개 이상의 좌석을 제거하고, 무대를 ‘ㄷ’자로 감싸는 발코니 좌석을 추가하는 등 음향 및 내장의 디자인을 대대적으로 수리 보수하는 작업이었고, 핵심은 역시나 음향의 개선이었다. 그리고 뉴욕시의 코로나 팬데믹 정책으로 인해 2020년 3월 링컨 센터가 문을 닫은 후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조 계획이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고, 2022년 10월 8일 재개장 되었다. 데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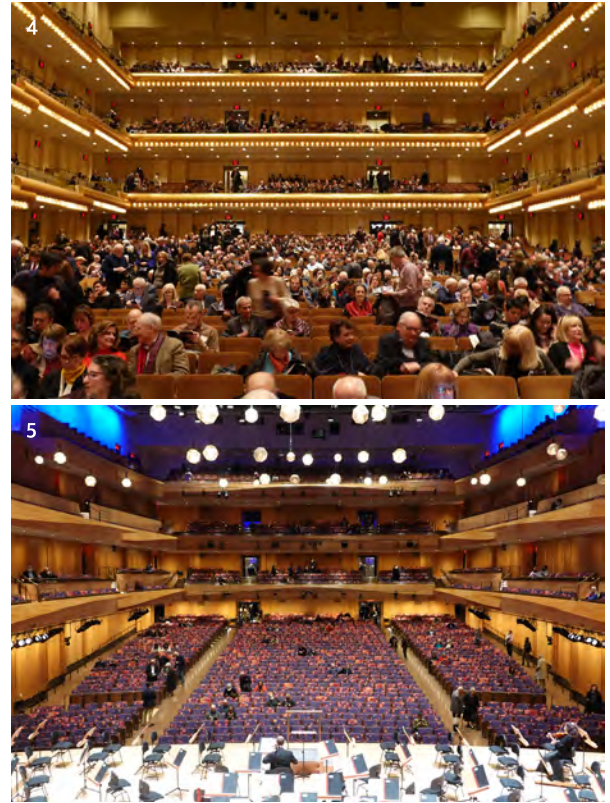
3 데이비드 게펜 홀 외관

드 게펜 홀의 리노베이션 비용에는 전체 5억 5천만 달러(현재 한화로 7천억 원)라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갔고, 이 즈음 중국계 미국인 사업가 클라라 우 차이(Clara Wu Tsai)의 5천만 달러 기부를 기념하여 Wu Tsai 극장으로 복수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

당시 애버리 피셔 홀 시절이었던 2009년 겨울 첫 방문부터 코로나 이전 마지막 방문이었던 2019년까지 십 여년간 거의 매해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워낙에 홀 음향의 악평이 높았던 터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BSO 보스턴 심포니 홀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정과 동선 상 두 공연장은 하루 내지 이틀 상간으로 찾았기에 나름의 평행 비교를 할 수 있었다. 물리적인 수치인 잔향이라고 하는 정량적인 지표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공연장의 음향학적인 부분은 정성적인 부분이 고려될 수 밖에 없고 다분히 주관적으로 흐를 수 있는 부분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쉽지 않다.

팬데믹으로 걸음이 멈추는 동안 데이비드 게펜 홀은 재개관을 하였고, 이후 네 차례 리노베이션을 마친 데이비드 게펜 홀에서 뉴욕 필하모닉의 연주를 만날 수 있었다. 일부러 좌석을 달리해서 홀의 음향을 경험해보기로 하였다. 첫 번째는 퍼스트 티어(First Tier) 중 새롭게 만든 무대 뒤 객석에서 연주를 감상했다. 흔히들 합창석이라고 부르는 자리이다. 음향적으로 좋은 위치는 아니기에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의 경우 가장 저렴한 좌석 카테고리에 해당한다. 하지만 해외의 경우 좌석 가격 기준으로 2번째 내지는 3번째 카테고리로 책정된다. 하지만 연주자들과 너무 가까워 특히 타악기 연주자와 관악 파트가 강조되어 들려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지휘자와 협연자를 제법 가까운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점은 때로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두 번째는 같은 퍼스트 티어지만 종전과 반대로 무대 반대



4, 5 퍼스트 티어석에서 바라본 객석(2019년, 2023년)

편 객석 2층 좌석이다. 콘서트 홀의 구조에 따라서 1층 중간 열과 같은 가격대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비드 게펜 홀의 경우는 퍼스트 티어의 가격은 전체가 동일하다. 여기서 흥미로운건 세번째 객석 1층(오케스트라) 오른쪽에 치우친 객석 앞부분과 4번째 음향학적으로 가장 좋은 카테고리인 객석 1층 중반부에 앉았던 경우이다. 마지막 세 좌석에서 경험이 음향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놀라웠다. 리노베이션을 마친 새로운 데이비드 게펜 홀은 좌석에 따라 일관성을 최소한으로 유지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홀의 어떤 좌석도(물론 무대 뒤편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게 더 좋거나 나쁜 좌석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종전에 고질적으로 제기되던 좌석에 따른 음향의 편차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개선되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광화문의 두 ‘카르멘’, 좀더 진보적일 수 없었을까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치명적인 여인’을 뜻하는 팜므 파탈(Femme fatale)은 강렬한 아름다움으로 남성들을 종속시키고 파멸로 이끄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팜므 파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을 꼽으라면 ‘카르멘’ 아닐까? 카르멘은 1845년 프랑스 작가 프로스페르 메리메(1803~1870)가 소설 <카르멘>에서 창조한 여주인공이다.

소설 <카르멘>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을 답사하던 고고학자인 작중 화자가 우연히 탈영병 출신 도적 돈 호세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액자형 구조다. 돈 호세는 카르멘의 미모에 반해 상관을 죽이고 탈영해 밀수조직에 가담하지만, 카르멘에게는 이미 남편 가르시아가 있었다. 이후 가르시아와 밀수조직 두목까지 죽인 돈 호세는 카르멘과 투우사의 관계를 질투해 카르멘까지 죽인다. 그런데,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은 출판 당시 약간의 성공을 거둔 정도였다. 여주인공 카르멘이 불멸의 명성을 가지게 된 것은 1875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프랑스 작곡가 조르주 비제(1838~1875)의 오페라 <카르멘> 덕분이다. ‘하바네라’, ‘투우사의 노래’

등 주옥같은 아리아들로 가득 찬 오페라 <카르멘>은 인기 있는 오페라 최상위권에 올라 있다.

소설과 비교해 앙리 메이야크와 뤼도비크 알레비가 쓴 오페라 대본은 액자 이야기를 없애는 동시에 잔인한 부분을 상당히 견어냈다. 카르멘의 난폭한 남편 가르시아 역할을 빼는 한편 돈 호세의 착한 약혼녀 미카엘라 역할을 새롭게 만든 것이다. 여기에 오페라 속 돈 호세는 소설과 달리 상당히 순진하게 그려졌다. 오페라 <카르멘>의 성공 덕분에 카르멘은 ‘팜므 파탈’의 대명사가 됐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카르멘을 헤프고 나쁜 여자가 아니라 구속을 거부하는 독립적인 인간으로 보는 관점이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호세가 여자를 잘못 만나 인생을 망친 피해자였다는 시각은 변하지 않았다. 특히 돈 호세가 카르멘을 죽인 뒤 울부짖는 장면은 안타깝고 슬픈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카르멘>은 관객의 거부감을 사는 오페라가 됐다. 돈 호세가 질투에 사로잡혀 카르멘을 죽이는 결말이 ‘교제 살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성 관객은 위화감을 넘어 불쾌함을 느끼게 됐다. 이런 이유로 2017년 ‘미투 운동’ 등장 이후 서구에서는 <카르멘>을 원작대로 무대에 올리는 것을 피하고 있다. 현대 오페라계에서는 연출가의 해석에 따라 작품의 배경이나 결말을 바꾸는 ‘레지테아터(Regie-

서울시오페라단 <카르멘> © 세종문화회관



Theater) 방식이 유행하기 때문에 <카르멘>에 대한 흥미있는 프로덕션이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이탈리아 피렌체 마지오 극장은 카르멘이 자신을 죽이려는 돈 호세와 몸싸움 끝에 정당방위로 죽이는 결말을 채택했다. 그리고 같은 해 영국 로열 오페라는 돈 호세에게 살해된 카르멘이 무대막이 내리기 직전 일어나서 객석을 향해 어깨를 으쓱한 뒤 퇴장했다. 여성 살해로 끝나는 오페라를 풍자한 것이다. 또 올해 스코틀랜드 오페라는 돈 호세가 경찰서에서 수사받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돈 호세가 카르멘을 죽인 채 끝나는 엔딩 대신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조했다.

결말 변경 외에도 남성의 이국적 환상에서 나온 카르멘 캐릭터를 바꾸는 프로덕션도 늘어나고 있다. 성적 매력으로 남자를 유혹하던 과거와 달리 주체적인 캐릭터로 많이 바뀌었지만 이마저도 온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실례로 집시들이 많이 거주했던 스페인 안달루시아 출신 여성 예술가들은 카르멘의 성적 자유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집시 사회는 매우 가부장적이라서 카르멘 같은 캐릭터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해 롱보로 페스티벌 오페라가 카르멘과 집시들을 살기 위해 애쓰는 현대의 도시민 공장 노동자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신 카르멘에 집착하는 돈 호세를 정신병자처럼 그렸다.

지난 9월 서울 광화문에서 세종문화회관 소속 예술단체 두 곳이 나란히 <카르멘>을 무대에 올렸다. 서울시 오페라단의 <카르멘>은 9월 8~9일 광화문 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진행됐고, 서울시극단의 <카르멘>은 9월 8일~10월 1일 M씨어터에서 공연됐다. 서울시오페라단의 <카르멘>은 3시간 가까운 전막 공연 대신 주요 아리아와 중창들을 연결해 70분으로 압축했다. 음악은 사전에 녹음된 음원을 이용했는데, 성악가나 합창단이 무대 아래 음악코치의 사인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화문 광장이 자동차가 시끄럽게 오가는 등 오페라 공연에 좋은 환경이 아닌 데다 무료로 진행되는 만큼 가볍게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을 끈 것은 전문 오페라합창단 20명과 함께 한 시민합창단 7명이다. 자원해



서울시극단 <카르멘> © 세종문화회관

서 선발된 이들 시민합창단은 최선을 다해 프랑스어 합창을 선보였다. 서울시오페라단의 <카르멘>은 광화문 광장을 활성화하고 서울 시민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만큼 초심자를 주요 관객층으로 삼았다. 그래서 산만한 야외에서 관객이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거리로 폴댄스와 불쇼를 넣기도 했다. 하지만 오페라와 맥락이 닿지 않아서 다소 생뚱맞게 느껴졌다.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카르멘>을 원작대로 표현한 캐릭터와 결말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언론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을 생각할 때 <카르멘>을 사랑 이야기로 풀어낸 것은 불쾌하게 느껴졌다. 초심자 대상의 프로덕션이더라도 작품의 비윤리성에 대한 고민이 아예 없어서 아쉬웠다.

서울시오페라단의 <카르멘>에 비해 서울시극단의 <카르멘>은 원작의 비윤리성을 고심한 흔적이 보였다. 고선웅 서울시극단장이 각색 및 연출한 이 작품은 원작 소설과 오페라를 섞었다. 즉, 오페라에만 나오는 돈 호세 약혼녀 미카엘라를 등장시킨 것이나 소설에서 비중이 컸지만 오페라에서는 빠졌던 카르멘의 남편 가르시아를 등장시켰다.

고선웅이 만든 카르멘은 남성 편력이 심한 바람둥이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적 인간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고선웅은 카르멘을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유하려는 돈 호세의 집착과 광기를 강조했다. 앞서 수많은 <카르멘>에서 돈 호세를 카르멘 때문에 인생 망친 불쌍한 남자로 그리던 것과 달리 찌질한 스토커로 바라본 것이다. 고선웅은 이번 작품을 연출하며 “카르멘이 명예를 회복하길 바랐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카엘라가 돈 호세에게 집착하다가 자살하는 것으로 끝냄으로써 카르멘의 명예를 회복하기보다는 돈 호세의 범죄를 희석시키고 말았다. 돈 호세의 범죄만 강조하거나 아예 강하게 단죄하는 결말이 좀더 설득력 있었을 것이다.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잠시 헤어짐을 알기에
더욱 아까운 전시들

박나무 자유기고가

학교라는 곳에서는 미술이 그렇게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 특히 대학입시가 가까워질수록 ‘국영수(국어, 영어, 수학)’에 비하면 ‘음미체(음악, 미술, 체육)’의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런데 세상에 나오면 양상은 달라진다. 음악당과 미술관과 체육관이 공공의 재원으로 곳곳에 설립되고, 또 그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다. 제야무리 학구열 높은 곳이라도 사실 학원은 많을지언정 공공이 운영하는 국어당이나 영어관, 수학과는 없지 않은가? 따지고 보면 인간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본능으로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체육관이야 있어온 지 오래고, 부산시민회관이 50년, 부산문화회관이 35년간 음악과 공연을 지지해 주었다. 그러나 미술은 조금 늦은 감이 있어 1998년 부산시립미술관, 2018년 부산현대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후발이긴 하나 그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져가는 와중이라 나름의 성과를 가져왔다고 본다.

부산시립미술관은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던 부산에 그나마 별들 구멍이었다. 아이엠에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나라살림으로 비탄에 빠져있던 시민들에게 부산시립미술관은 어쩌면 사치였겠지만, 그래도 피어나는 한줄기 희망과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싶다. 벡스코와 함께 센텀시티 일대의 미래를 바라보며 과감하게 선택한 위치와 그 건립에 우여곡절은 있었겠지만, 관련 미술인들의 열망과 부산시정의 의지가 잘 어우러져 만든 큰 작품이다.





이제 그 시립미술관이 25년간의 힘겨운 땀박질을 잠시 멈추고 2년간 개보수공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전시와 행사들이 12월 17일까지 이어지고 이후에는 큰 규모의 개보수공사를 거쳐 공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작품과 자료 수장도 더욱 안정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한다(다만 바깥의 이우환공간은 그대로 운영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상당 기간 부산시립미술관의 새 단장을 기다려야 하고, 당분간 그 짐은 부산현대미술관이 떠맡게 될 것 같다.

12월 17일까지 마지막 전시가 이어진다. 새로 바뀌는 모습이야 우리로서는 기다릴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만, 마지막을 장식하는 전시와 기획들에서 부산시립미술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가능해 볼 기회가 될 것 같다. 2년쯤은 만나지 못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 있는 힘을 다 해 마련한 전시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매일 오후 2시부터 한 시간 가량 도슨트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다.

3층에서는 '과거는 자신이 즐거이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이름으로 부산시립미술관의 지난 이야기와 현재를 갖가지 방식으로 들려준다. 백남준의 1995년작 설치미술 <소통/운송>이 시대를 거슬러서도 유효한 메시지를 던지며 건재하고, 부산시립미술관이 의욕적으로 전개해 왔던 기획전시들이 요약의 형태로나마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당시의 자료와 포스터, 또 기념작들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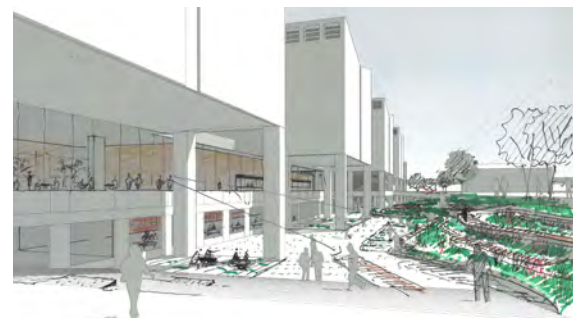
서 향수를 맡을 수도 있겠다. 지하에서는 김홍석 작가의 주관으로 '많은 사람들'전이 열리고 있다. 김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중에 어린이들이 풀로 붙여 직접 전시물을 만들어 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프로그램들이 진행된다. 2년 후에 훌쩍 큰 아이들은 오늘을 어떻게 추억하고 있을까? 결국 나중에 이 미술관을 돌려받을 사람들은 그 아이들이다.

2층에서는 13팀의 젊은 작가들이 미술관과 전시장을 극장과 무대에 비유해,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마음껏 선보이고 있다. 가까이 가지 말고, 손대지 말고, 사진 찍지 말고... 등의 주의사항이 없다. 하물며 어떤 공간에서는 관객들이 직접 스프레이로 칠하기도 하며, 공을 던지며 즐거워하는 소리가 요란하여 그것이 함께 만드는 작품이 된다. 벽과 캔버스의 구분이 없어지고, 하물며 바닥과 벽을 갈라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진에 이어 영상과 음향까지 미술의 영역에서 함께 헤엄치며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고 있다. 앞으로의 미술관이 뉴미디어와 융합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못 궁금하다.

이젠 사이가 벌어진 틈새도, 삐걱거리는 나무마루바닥도 못 본다 생각하니 오히려 정겹다. 12월 17일 입대할 날짜를 받아놓은 아이를 만나듯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더 자세히 쳐다보아야겠다. 하루하루가 아쉽다.

※ 운영시간 : 오전 10:00~ 오후 6:00 (월요일 휴관)

문의 부산시립미술관 051-744-2602, art.busan.go.kr



설계공모 스케치



여우와 돌고래

2023. 11. 18^{SAT}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INVITATION TO THE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E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 2774- 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움	557-3369

E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또소극장	852-9161
열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을숙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K

KBS부산홀	620-7181
--------	----------

S

SM아트홀	1600-1602
-------	-----------

ARTS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소지로 내한공연



◆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가 부산을 찾는다.

오카리나 연주자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소지로는 지난 1986년 일본 NHK TV 다큐 '대항하' 테마곡 연주로 단숨에 주목받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엔딩곡 'Always with me' 연주로 유명하다.

오카리나는 맑고 고운 음색을 내는 이탈리아의 전통 관악기로, '작은 거위'를 의미하는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의 방언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19세기말 토기로 만든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사육제 호루라기에서 발전했으며 흔히 새 모양으로 되어 있고 1~2음만을 낸다. 보통 8개의 손가락 구멍과 2개의 엄지손가락 구멍이 있으며, 음색이 맑고 고우며 목가적이다.

오카리나를 전 세계에 알린 소지로는 지난 1975년, 일본 도치기현 산골마을에서 난생 처음 들은 오카리나의 맑고 고운 음색에 매료되어 스승인 가야마 히사시로부터 오카리나를 배우기 시작했다.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소리를 찾아 직접 오카리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1985년 음반 데뷔까지 그가 10년간 제작한 오카리나만도 만 개가 넘는다. 소지로는 그 중에서 엄선한 10여 개의 오카리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데뷔 후 이듬해인 1986년, NHK TV 특집 '대항하'의 배경음악으로 일약 주목 받기 시작한 소지로는 이후 지금까지 매년 오리지널 앨범을 발표하고 앨범 발매에 맞추어 전국 각지에서 콘서트 투어를 가져오고 있다. 1993년에는 앨범 '목도(木道)', '풍인(風人)', '수심(水心)'의 자연 3부작으로 제35회 일본 레코드 대상 '기획상'을 수상했으며 2015년 오카리나의 본고장 이태리 정부로부터 훈장 수훈 및 콘서트, 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콘서트, 2016년 도교국립박물관 기념전시 콘서트(2016) 등 오카리나 연주자로서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콘서트 및 창작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항상 자연과 어울리고 흠을 소중히 하는 소지로의 생명력 넘치고 원시적인 소리를 전달하고자 일본 실력파 연주 그룹과 동반 내한한다. 특히 그의 대표곡 중에서도 힘차고 웅장한 자연의 소리를 주제로 선택, 어쿠스틱 기타와 다양한 타악기 분야의 실력파 연주자들이 소지로와 함께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오늘날 소지로를 잇게한 '대항하'를 비롯해 '숲의 메아리', '숲으로 돌아가다', '천공의 오리온', '아베마리아', '별밤의 언덕' 등 국내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소지로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일 시 1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S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교류음악회



지휘 박경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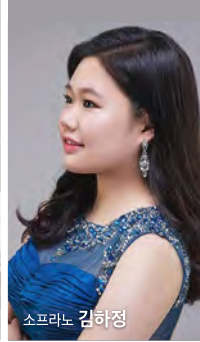
지휘 이동훈



해금 최윤정



대금 손한별



소프라노 김하정



소리 정선희

◆ **영남권의 대표적인 국악단체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의 교류음악회가 11월 1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은 지난 1992년 12월 1일 창단된 후 악·가·무(樂·歌·舞)를 고루 갖춘 국악단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기획과 창의적인 레퍼토리 개발로 창작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상임지휘자 박경현이 이끄는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의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가 펼쳐진다.

1부 첫 곡으로는 인간의 탄생과 시련, 그리고 그 시련을 극복하여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모습을 스토리 있게 전개하여 작곡한 임교민 곡 국악관현악 '태산'이 연주되며,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초연 위촉곡인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위한 국악관현악 '소요유(逍遙遊)'(황호준 곡, 2023년), 오케스트라를 위한 메나리(이용탁 곡, 2022년)을 들려준다. 해금 협연을 맡은 최윤정은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검무 이수자로 현재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해금 수석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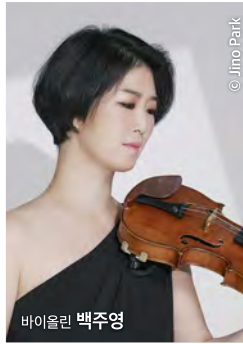
2부에서는 대금 협주곡 '아르티'(이정호 곡)를 시작으로 성악

과 판소리를 위한 국악관현악 '이화우'(이동훈 편곡), 국악관현악 '美!樂!挖! miracle'(김창환 곡)이 이어진다. 곡을 듣는 이가 각자의 느낌대로 제목의 의미를 정하도록 아무 의미없는 글자로 제목을 정한 '아르티'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손한별의 협연으로 들려준다. 손한별은 국가무형문화재 중요제례악 전수자, 국가무형문화재 대금정악 전수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삼현육각 대금 이수자로 현재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원 객원교수,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강사로 있다.

이어서는 매창의 시조로 이별한 정인(情人)을 향한 그리움을 노래한 '이화우'를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정선희와 부산시립합창단 단원 김하정이 노래한다. 소프라노 김하정은 제42회 김해 전국음악학생경연대회 대학부 1등상(김해시장상)을 수상하고 현재 부산대학교 동대학원에 재학중이다. 정선희는 (사)정정렬제 최승희 판소리 보존회 부산지회장, 소리집단 '고성방가(古聲訪家)' 대표, 전라북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호 춘향가 이수자로 있으며, 전국송달국악대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마지막 곡인 '美!樂!挖! miracle'은 힘들고 지친 삶을 털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일 시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5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에프와 라흐마니노프



◆ **세계 3대 지휘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한 세계적인 거장 샤오치아 쉰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5회 정기연주회가 11월 1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곡가 프로코피에프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려준다.

대만 출신의 지휘자 샤오치아 쉰은 1988년 프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콩쿠르를 시작으로 1991년 이탈리아 트렌토의 안토니오 페드로티 지휘콩쿠르, 1994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키릴 콘드라신 지휘콩쿠르까지 세 개의 메이저 국제 지휘 콩쿠르를 석권했으며, 1998년 독일 라인주의 코블렌츠 극장과 코블렌츠 라인 필하모니 음악감독을 거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하노버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재임하면서 방대한 레퍼토리의 오페라들을 선보인 바 있다. 특히 그는 오페라 지휘자로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콘서트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그라모폰지 선정 세계 오케스트라 랭킹 1위에 빛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로열 콘서트헤보우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이번 무대 첫 곡으로는 러시아 민속음악의 활력과 스페인 풍의 이

국적인 분위기가 절묘하게 조화된 프로코피에프 '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으로, 이 곡은 20세기의 명 바이올리니스트 야샤 하이페츠가 사랑했던 곡으로 유명하다. 이번 무대에서는 최고의 작곡가이자 마에스트로인 펜데레츠키로부터 '안네-소피 무터를 이을 바이올린의 여제'라는 극찬을 받은 백주영이 협연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은 1995년 시벨리우스 콩쿠르를 시작으로 1996년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1998년 인디애나 폴리스 콩쿠르, 1999년 롱티보 국제 콩쿠르, 2001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05년 29세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음대 역사상 최연소 교수로 임용됐으며, 2007년에는 세계 최초로 바흐와 이자이의 무반주 바이올린 12곡 전곡을 하루에 완주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베토벤 탄생 250주년인 2020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앨범을 발매했으며, 현재는 앙상블 오푸스의 리더로도 활약 중이다.

이어서는 라흐마니노프가 교향곡 제1번의 참담한 실패를 극복하고 논리적인 전개와 감정의 드라마가 혼합된 독창적인 작품을 완성하여 그에게 생애 두 번째 글린카 상을 안긴 '교향곡 제2번'을 들려준다.

일 시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3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가족무용극 여우와 돌고래



◆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섬세한 몸짓과 그 속에서 만나는 이솝화로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하는 가족무용극 ‘여우와 돌고래’가 11월 18일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관객과의 소통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고블린파티’가 제작한 이번 작품은 현대무용에 동화구연과 영상을 활용한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육지를 거니는 여우와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가 해안선에서 만난다. 둘은 달을 듯 달지 않을 듯 서로의 존재를 지켜보고 서로의 틈을 느껴본다. 여우와 돌고래의 키워드는 간극이다. 간극은 눈에 보이는 사물들 사이의 틈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사건, 현상 사이의 틈을 말하기도 한다. 모든 존재는 각자 무언가와 관계가 있고 그 사이에는 늘 간극이 존재한다. 사랑하는 사람과 나 사이에도, 나와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계에도 크고 작은 간극이 있다.

‘고블린파티’는 이번 작품에서 이 간극을 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으로 둔다. 여우와 돌고래는 해안선에서 만나 서로의 다른 생김새를

그리고 각자가 사는 공간을 뒤로 물러서서 구경한다. 두 창작자는 작품 속에서 여우와 돌고래가 되어 서로의 틈을 느끼고 틈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며 그 틈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며 성장한다. 이번 무대는 고블린파티의 안무가 임진호, 이경구가 공동안무를 맡았으며, 임진호, 이경구, 임성은, 안현민, 이연주, 박소진, 김민주가 출연한다.

‘고블린파티’는 비상한 재주로 사람을 훌러기도 하고 심술궂은 행동과 시선을 가진 한국의 도깨비들(GOBLIN)이 모인 정당(PARTY)이다. ‘굴러가지 않는 네모를 굴러보자’는 모토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고블린파티는 특별한 대표 없이 전 멤버가 안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고블린들의 파티에는 작품과 작품을 제작한 방향 제안자와 공동창작자, 그리고 작품을 함께하는 관객들이 존재한다. 컨템퍼러리 댄스를 기반으로 하여 관객들과의 소통에 가장 큰 중점을 두되 관객의 시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

일 시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시립합창단 제191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엘리아**



◆ **부산시립합창단이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시리즈 마지막 무대로 마련하는 멘델스존 ‘엘리아’가 11월 23일 부산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엘리아’는 헨델의 ‘메시아’, 하이든 ‘천지창조’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여겨지는 명곡으로, 부산시립합창단은 지난 2021년 ‘메시아’, 2022년 ‘천지창조’에 이어 마지막 작품으로 ‘엘리아’를 선보인다. ‘엘리아’는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는 물론 연주시간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대작으로, 고전의 엄격하면서도 균형적인 아름다움과 낭만의 자유로운 감성이 조화를 이루는 명곡이다.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정혜민,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이광근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깊은 울림이 있는 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소프라노 정혜민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도독, 쾰른 국립음대 석사 및 Konzertexamen 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창작오페라 ‘이중섭’ 초연 및 재공연, 창작오페라 ‘처사 남명’ 초연 주역, 서울시립합창단 ‘글로리아 미사’ 한국 초연 솔리스트, 안양시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 솔리스트 등 다수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메조소프라노 김선정은 독일 함부르크 국립음대 학사 및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유럽 및 국내 무대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서울시립교향악단, 코리안 심포니, KBS 방송교향악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대전시립교향악단, 원주시립교향악단, 경기필하모니,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과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테너 최상호는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하고 도독, 칼스루에 국립음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크푸르트-오데르 오페라단, 카셀 국립오페라단, 라이프치히 오페라단 전속가수를 역임했다. 그동안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으며, 현재는 국립오페라단 단장 및 예술감독,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 교수로 있다. 부산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리톤 이광근은 연세대학교 성악과 및 이태리 베르디 국립 음악원 석사, 독일 마인츠 음악대학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독일 울름 극장 전속가수, 하겐, 할레, 비스바덴, 아우구스부르크, 브레멘 객원가수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예술감독 전진이 이끄는 나주시립합창단은 2016년 6월 창단된 후 뛰어난 기량과 뜨거운 열정으로 정통 합창부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연주로 시민을 위한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 시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실험실 프로젝트 르 시드



연출 김지용

◆ 연극의 형식 및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부산시립극단 실험실 프로젝트 ‘르 시드’가 11월 24일부터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극단의 실험실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음악극 ‘나혜석’을 통해 음악과 텍스트의 결합, 무대와 조명과 영상의 결합, 무용과 연기의 결합 등 장르간 통섭에 대한 실험적 시도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번 실험실 프로젝트에 선정된 피에르 코르네유의 ‘르 시드 (Le Cid)’는 외형적으로는 극 전체가 노래로 이루어진 ‘송 스루 (Song Through) 뮤지컬’로, 배우가 내뱉는 대사 위주의 연극을 주로 올리는 부산시립극단으로서는 꽤 만만찮은 도전이다. 또한, 스타일 면에서도 부산문화회관 사랑채 극장의 무대와 객석을 파괴하여 ‘르 시드’만의 독특한 공간을 창출할 예정이다.

피에르 코르네유는 라신, 몰리에르와 더불어 프랑스 신고전주의 시대를 이끈 걸출한 극작가이다. 그가 1636년 발표한 ‘르 시드’는 스페인의 전설적인 국민 영웅 ‘로드리고 디아스 데 비바르’라는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희곡으로, 프랑스 고전주의 문학의 최대 걸작으로 꼽힌다. 작품명인 ‘르 시드’는 스페인어 ‘엘 시

드’를 프랑스어로 표기한 것으로, 여기서 ‘시드’는 아랍어로 ‘군주’를 뜻한다.

그의 대표작인 ‘르 시드’는 당시 엄청난 흥행을 기록한 작품이지만 흥행 성공과는 별개로 코르네유는 ‘르 시드’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었다고 한다. 비극이지만 낭만적인 극적 분위기를 지녔던 ‘르 시드’는 엄격한 법칙을 고수하는 신고전주의 학자들에게 맹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코르네유가 굴복함으로써 희곡은 신고전주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게 고쳐져 오늘날에 전하고 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부산시립극단 김지용 예술감독은 “예술적 실험이 실패하는 것은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한 까닭”이라며 “400년 전 희곡인 만큼 각색을 하고 노랫가사를 짓는 과정에서 과거의 관념을 오늘날의 현실에 변용하여 어색함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연극이 ‘해석’적 작업이자, ‘지금 여기’의 예술인 만큼, 남성 위주의 서사를 대폭 삭제하고, 여성 등장인물들이 수동적으로 눈물만 흘리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요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새롭게 각색했다.

일 시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25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2023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 **열정과 재능을 갖춘 지역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가 12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지역 청년 예술인들이 더 이상 부산을 떠나지 않고 마음껏 예술 및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터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로, 지난 10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5명의 청년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2016년 프랑스 로베르트 마사드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듬해 유럽 무대에 데뷔한 소프라노 김리라는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블, 베르사유 국립음악원 연주자과정 및 최고 연주자과정, 스위스 베른 고등음악원 오페라 연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2021년 귀국 후 오페라 주역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도독, 브레멘 국립예술대학교 석사과정을 졸업한 소프라노 박성연은 유학 시절부터 다양한 무대에 서며 오페라 가수로서의 탁월한 달란트와 기량을 인정받았다. 귀국 후에는 부산시립합창단 비상임단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문화예술기업 (주)사콘느에서 어린이오페라 코치 및 전문연

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테너 성민기는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L. Refice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귀국 후 전문성악가로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하여 이름을 알린 바리톤 김경한은 동의대학교 및 동대학원, 이탈리아 밀라노 도니제티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제72회 개천예술제 대학·일반부 대상, 제4회 부산국제콩쿠르 전체 대상을 수상했다. 바리톤 황동남은 수원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블, 프랑스 에콜노르말 고등연주자과정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벨랑국제콩쿠르 대상, 프랑스 베지에 국제콩쿠르 3위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했으며, 귀국 후에는 다수 오페라 및 콘서트 무대에 서오고 있다.

오디션 합격자들이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이는 1부 무대에 이어 부산성악가협회의 무대로 마련되는 2부에서는 Fragrance choir 지휘자, 해운대구립 소년소녀합창단 음악감독, 루보체 레디스싱어즈 지휘자 권영기와 영도구립소년소녀합창단, 정관청소년오케스트라, 기장심포니오케스트라 지휘자 채범석의 지휘로 선배 성악가들의 희망과 응원의 무대가 펼쳐진다. 특히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라는 주제에 맞게 게스트 소프라노 노서운의 무대가 함께 꾸려져 더욱 기대를 모은다.

일 시 12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볼프강



◆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조성현 초청으로 마련되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수석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볼프강’이라는 타이틀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곡으로 꾸며진다.

첫 곡으로는 ‘잘츠부르크 교향곡’이라는 별명을 지닌 세 곡의 디베르티멘토(KV.136~138) 가운데 한 곡인 ‘디베르티멘토 KV.138’을 들려준다. ‘기분전환’이라는 뜻의 디베르티멘토(Divertimento)는 18세기 후반에 유럽, 특히 오스트리아에서 성행했던 기악곡으로, 모차르트가 남긴 37곡의 디베르티멘토 중 ‘디베르티멘토 KV.138’은 그 성격상 가장 교향악적으로 전형적인 오케스트라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어지는 곡인 ‘플루트 협주곡 제2번 KV.134’는 모차르트가 당시 네델란드의 부호이자 플루트 애호가로부터 의뢰받은 곡을 마감일에 쫓겨 자신의 ‘오보에 협주곡 다장조’를 편곡하여 완성했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전해지는 곡으로, 밝고 경쾌한 플루트 선율의 매력을 만날 수 있다. 플루트 협연을 맡은 조성현은 2018년 20대 중

반의 젊은 나이에 독일 서부 지역의 대표 악단인 쾰른 귀르체니히 오케스트라 수석으로 발탁된 후 입단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종신 수석으로 임명되어 큰 화제를 낳은 바 있다.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카라얀 아카데미에서 오케스트라 커리어를 시작한 조성현은 지휘자 사이먼 래틀, 주빈 메타, 리카르도 샤이, 안드리스 넬슨스, 투간 소키예프, 시미온 비치코프 등이 이끄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정기연주회 및 투어에서 단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에는 이반 피셔가 이끄는 베를린 콘체르트하우스 오케스트라, 크리스토프 폰텐이 이끄는 쾰른 체임버 오케스트라의 객원 수석으로도 활약하며 내공을 쌓았다. 2019년부터 연세대학교 관현악과의 최연소 조교수로 전격 발탁되며 한국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한 조성현은 지난해 사단법인 고영홍프로젝트의 오케스트라 디렉터이자 주축 멤버로 활약했으며, 현재는 금호솔로이스츠, 일본 산교 플루트 아티스트, 플루트아트센터(FAC) 음악감독 등 국내외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지막 곡으로는 모차르트의 마지막 교향곡인 제4번 ‘주피터’를 들려준다. 베토벤 이전에 작곡된 교향곡들 가운데 최대 규모의 교향곡으로, 그리스 신화에서 모든 신들의 제왕이었던 주피터의 이름에 걸맞게 웅장하고 장대한 규모의 작품이다.

일 시 1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전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뛰어난 제작진과 출연진, 수준 높은 관객이 만들어 낸 값진 결과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 손일훈 작곡가, 음악감독

지난 9월 22-23일, 이들 동안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무대에는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가 올랐다. 규모가 큰 오페라를 연주회장의 여건에 맞게 축소해서 연출적인 요소는 줄이고 음악적 연주에 중점을 두는 형태를 ‘콘체르탄테’라고 하는데, 오페라에 비해 가볍기 때문에 피나 인기가 많다. 오페라의 서곡, 하이라이트만 발췌하는 갈라 콘서트나 연주회용 모음곡만 따로 연주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그런데, 이번 금정문화회관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의 경우는 그보다 규모가 커서 오페라에 가까웠다. 갖출 것은 모두 갖추었고, 뺄 것은 과감히 빼버린, 콘체르탄테보다 더 실용적인 ‘콘서트 오페라’였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건립에 발맞춰 자체 기획력과 오페라 시장을 동시에 성장시키는 프로젝트, ‘부산오페라 시즌’의 목적에 걸맞게 금정문화회관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제작진과 화려한 출연진으로 구성되어 전문가들을 주목시켰다. 공연 하루 전, 마지막 리허설을 참관할 기회가 있었는데, 현장은 순조로운 듯 보이면서도 긴장감이 맴돌았다. 객석에서 앉았다 서기를 반복하며 무대, 조명, 의상부터 자막까지 빠트린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이희수 연출가의 분주한 시선은 성악가와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지휘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소리를 이끌어내는 권민석 지휘자의 귀와 일체가 되었다. 공연 첫날 로비는 관객으로 가득 차 시끌벅적했고, 객석

은 압도적인 무대를 구경하는 손짓과 속삭임으로 웅성거렸다. 조명이 바뀌고, 무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공연이 시작되었다.

보통 오페라 극장에서는 무대의 앞쪽 아래, 피트에 위치해야 할 오케스트라가, 금빛누리홀에서는 무대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았고, 가려진 무대를 공개하는 커튼은 전방이 아닌 후방에 위치했다. 전통적인 오페라처럼 서곡 연주와 함께 커튼이 양옆으로 갈라지며 등장한 합창단. 등퇴장이 따로 없는 이들 모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구속된 상태의 배경으로 장식되었다. 심플하고 모던한 계단 형태의 무대는 오케스트라를 둘러싸고 있고, 그 위로 나뭇가지와 동시에 뿌리로 보이는 오브제가 떠 있었는데, 무대의 왼편과 오른편에서 각각 서로를 향해 중심으로 뻗쳐있는 이 오브제는 마치 혈통이 다른 두 원수 집안을 상징하는 듯 하였고, 가까스로 닿으려 하는 모습이 서로의 손을 맞잡으려고 애쓰는 두 주인공처럼 보였다. 게다가 무채색의 어두운 무대에 고통을 상징하는 가시판까지 보이니, 누가 봐도 이 이야기는 이뤄질 수 없는 운명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무대장치를 전환할 수 없는 콘서트 오페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돋보였다. 모든 장치에는 명확한 이유와 그 이상의 기능이 있었고, 오브제에 영상을 덧입혀 배경과 심정을 표현한 것도 아주 훌륭한 연출이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감정 변화보다는 처음부터 루치아의 비극을 향하여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관객들은 작품에서 서서히 점점 더 깊숙이 빠져들었다.

이날 성악가 출연진들은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함께 무대를 빛내는 베테랑이 모여 상상 그 이상의 호흡을 보여주었다. 날렵한 동작과 기세 좋은 목소리로 합창단을 이끌며 선창하는 노르만노 역의 김지훈 테너, 욕심과 다급함, 그리고 후회스러운 감정이 잘 전달되었던 엔리코 역의 이승왕 바리톤, 그리고 무게감 있는 중재인의 역할을 훌륭히 소화한 라이몬도 역의 김대영 베이스. 극의 초중반을 담당하는 이 세 인물의 뚜렷한 음색과 연기로 공연장 열기는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맑고 순수한 고음으로 객석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아르투로 역의 정은성 테너, 폭넓은 성량과 표현력으로 분위기를 주

도한 알리사 역의 사비나 김 메조소프라노까지 모두가 제 역할을 충실히 소화했다. 에드가르도 역의 최원휘 테너는 낭만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한 음색이 공존했다. 고음에 머물러 애절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그에게 객석은 흡족한 듯 진심 어린 박수를 여러 차례 보냈다. 비련의 여주인공 역을 맡은 캐슬린 김 소프라노는 스스로 루치아가 되었다. 그녀가 이성을 잃은 장면에서 객석에서는 혀를 꼴꼴 차고, 연민의 정을 느끼듯 연신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다. 이미 모두가 루치아를 동정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객석의 이런 반응 소리가 꽤 크고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누구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지 않았다. 영화관에서 다 같이 웃거나 울고, 경기장에서 모두가 열광하거나 탄식하는 것처럼, 오페라 공연장에서의 이런 반응은 예로부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어지는 하이라이트, 광란의 아리아는 공연의 정점을 찍었다. 홀로 20분 가까이 고음을 노래하는 이 부분이 기교적으로도 연기로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소프라노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루치아가 실성하여 죽음에 이른 뒤 객석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다. 제작된 환경도 같고, 역할도 같지만, 그 날의 출연진에 따라 분위기가 다른 것이 오페라의 특징이다.

이튿날 공연은 확실히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이광근 바리톤이 연기한 엔리코는 매정하게 루치아를 이용하며 가문의 권위를 중요시하는 점이 부각되었고, 신명준 베이스가 연기한

라이몬도는 걸모습만 중재인일 뿐, 엔리코와 한패인 면이 강조되었다. 작당한 이들의 사이에서 김준연 테너가 연기한 에드가르도는 애절함이 더욱 짙게 느껴졌다. 루치아 역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구민영 소프라노도 어쩔 수 없던 상황의 혼란스러운 선택, 그리고 실성의 흐름을 잘 연결해 스토리 전개에 집중력을 가했다. 같은 내용을 두고 첫째 날은 영화를 보는 듯, 둘째 날은 소설을 읽는 듯 감상에 재미가 붙었다.

양일간 공연장을 찾은 관객은 적극적인 박수로 화답했다. 이처럼 관객 모두가 극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자칫하면 짧은 순간에도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쉬운데, 현장 분위기 파악에 노련한 권민석 지휘자는 한 번도 그럴 틈을 주지 않았다. 이날 로비에는 지휘자가 가져온 도니제티의 자필 악보가 전시되어 있었다. 공연을 마치고 나온 그는 현재 사용되는 악보와 처음 작곡 당시의 이 악보를 비교하면서 다른 점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 모든 것을 인력으로 해결하던 당시에는 출판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누락된 것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도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 이렇게 작곡 당시의 배경을 탐구하고 현재의 조건과 절충하며 작품에 임한 지휘자는 해석에 확신을 갖고 부산 오페라하우스 합창단과 오케스트라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소리를 열정적으로 뽑아냈다. 특히 모두가 다 같이 노래하는 6중창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여건상 무대의 한가운데서 전방의 오케스트라와 후방의 성악가를 동시에 지휘하는 부분도 마치 뒤에 눈이 달린 듯 조화롭고 안정적인 음의 균형을 이뤄냈다. 이들이 작품을 준비하면서 쏟은 열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공연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짐작도 할 수 없는 성공적인 호연이었다. 뛰어난 제작진과 출연진, 그리고 수준 높은 관객이 함께 만들어 낸 값진 결과가 부산오페라하우스의 비전에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부산오페라하우스가 국제적 문화행사를 목표로 더 나아가려면 지역 중심의 한계성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예술인이 부산의 미래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발전의 균형과 순서가 현명하게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악단의 역사 위에, 젊음과 미래가 포개진 순간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 송현민 음악평론가, 월간객석 편집장

유럽에서는 ‘창단 몇백 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교향악단들의 공연들이 종종 오르곤 한다. 그만큼 그들의 역사에서 클래식 음악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예술이다. 한편 20세기 초입에서야 유입·도입되었기에 역사가 짧은 국내에서는 ‘창단 몇십 주년’을 기념하는 공연도 소중하다. 국립·시립 교향악단이 음악을 위한 ‘제도’(적 측면)를 보여준다면, 민간 교향악단은 음악을 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군다나 ‘국립’이나 ‘시립’의 교향악단도 기원을 살펴보면 저변에는 ‘민간’으로 설립된 단체들을 모토로 한 곳이 많기에 이 땅에서 민간 교향악단의 역사를 돌아보는 일은 중요하다.

부산 음악문화의 ‘역사’와 ‘젊음’을 다지며

9월 26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BSO)의 제54회 정기연주회이자 창단 30주년 기념공연이 있었다. 1993년에 창단된 BSO의 산파는 현재 BSO의 예술감독 오충근이다. KBS교향악단 제1바이올린 단원을 역임한 그는 1985년부터 부산시립교향악단 악장으로, 1990년부터 고신대 교수로 재직했다. 당시 서울에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으로 인한 문화계 붐으로 전국의 교향악단이 한자리에 모이는 교향악축제가 1989년에 생겼고, 1991년 소련 붕괴 후 이념 갈등이 완화되며 러시아 레퍼토리들과 러시아 음악가들의 공연이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물결 속에서 BSO는 1993~1999년에 ‘부산챔버오케스트라’로 활동했고, 2000년에 2관 편성으로 확장했으며, 2010년 사단법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정기연주회는 물론 부산 지역 클래식 공연들의 ‘틈’과 ‘간격’을 촘촘히 메우는 행보로 점차 자리 잡았는

데, 예를 들어 호세 카레라스나 조수미의 내한 공연, 아시아태평양국제대회나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등이었다.

이런 역사를 기념하는 이번 공연이 더욱 특별했던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오충근은 공연을 앞두고 “공연 기회가 많지 않은 지역의 젊은 음악가들에게 BSO 같은 민간 교향악단의 존재는 절대 가볍지 않다”며, 부산과 경상권에서 활약하는 젊은 음악가들을 단원으로 대거 채용했기 때문이다. 가을밤에 125명 단원이 한 무대에 올랐다.

BSO와 라흐마니노프의 생일상

하나의 생일상에 BSO와 라흐마니노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두 개의 음악 케이크를 동시에 올렸다. 1부는 하순봉이 편곡한 ‘라흐마니노프 주제에 의한 교향적 엘레지’, 2부는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었다. BSO의 악장을 역임한 황지원이 해설자로 나서 환영 인사와 곡목 해설을 맡았다.

‘라흐마니노프 주제에 의한 교향적 엘레지’는 피아노 3중주 1번 ‘엘레지’의 ‘실내악적 구조’를 ‘교향악의 문법’으로 확장하고 끌어올린 곡이었다. 원곡에 담긴 교향시나 환상곡 같은 느낌과, ‘엘레지’라는 표제처럼 원곡에 내재된 장엄한 슬픔이 교향곡으로 재현(재연)되며 색다른 라흐마니노프를 만날 수 있었다. 작곡가 하순봉은 부산대·만하임음대·베른음악원에서 수학하고 현재 경성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BSO는 지난 10월 17일·18일 공연에서도 마하엘 슈타우더(1965~)와 김한기(1954~)의 창작곡을 선보이며 작곡계에 든든한 지원군임을 자처하고 있다.

2부는 하이라이트인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이 올랐다. 젊은 단원들의 음악적 피와 살로 무장한 오케스트라에 시동을 건 오충근은 세월이 내려앉은 백발이 휘날릴 정도로 속도감 있는 템포로 몰아갔다. ‘젊음’과 ‘연륜’이 교차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앞길을 약속하는 순간이었다. 중간마다 독주를 맡은 김주영 악장의 바이올린 선율도 인상적이었다. 긴박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하게 흘러가는 2악장(알레그로 몰토)은 BSO가 지나온 역경과 극복의 시간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현악들은 연가(戀歌)처럼 지나온 시간을 향한 고즈넉한 노래를 부르는 듯했고, 때로는 역경의 시간을 뚫고 나오고자 박차를 가하던 때를 연상시키듯 준힘한 다이내믹을 보여주기도 했다.

3악장(아다지오)의 도입부에서 클라리넷 수석 백동훈의 감미로운 독주가 시작되자, 오충근의 지휘는 한껏 여유로워졌다. 그는 부산의 미래를 이끌 주인공은 단원들인 당신이라고 접지하듯, 음악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선율이 자유롭게 교차하도록 했다. 지휘자와 단원들이 만드는 다짐과 격려의 순간이었다. 음악을 듣다가 들춰본 프로그램북에는 단원들의 사진과 이력이 빼곡했다. 그 소개는 곡목 해설이나 악단 역사를 담은 페이지보다도 앞장이었다. 이러한 순서가 왜 중요할까 싶지만, 이러한 순서와 배치야말로 BSO가 품은 생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지 않을까 싶었다. 교향악단이란 젊은 단원들의 '공동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이 부산 음악계의 21세기를 이끌 이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

니었을까. 4악장(알레그로 비바체)에서 오충근과 BSO는 그간의 힘겨움은 '뒤'로 하고, 펼쳐질 '앞'날을 기약하는 팡파르처럼 힘찬 연주를 들려주었다.

부산음악계에 불어넣을 긍정의 영향력

BSO는 11월 23일 을숙도문화회관에서 제55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있다. 노부스 콰르텟의 김규현(비올라), 아벨 콰르텟의 윤은솔(바이올린)이 모차르트의 신포니아 콘텐츠탄테 K.364와 교향곡 35번을 선보이는 '모차르트 스페셜' 공연이다. BSO는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젊은 솔리스트를 공연마다 협연진으로 영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산 음악계에 긴장과 탄력을 불어넣고 있다. 그리고 내년에는 탄생 200주년을 맞은 브루크너(1824~1896)의 교향곡도 예정 중이라고 한다. 2024년에 준공 예정인 부산국제아트센터나 낙동강아트홀 등 클래식 전용홀의 시대가 부산에서 펼쳐지면 BSO의 활동은 더욱 바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연의 앙코르는 '윌리엄 텔' 서곡과 '해피버스데이 변주곡'이었다. 이들이 음악의 영웅처럼 곳곳하게 나아가기를, 그리고 10년 뒤인 2033년에도 생일 축하 노래가 다시 울려 퍼지기를 기대해본다. BSO라는 음악적 터전과 발판을 통해 성장할 단원들의 지혜가, 그때도 새롭게 등장한 젊은 단원들과 이번 공연처럼 교감하길.

부산문화회관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
제9회 정기연주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

일 시 | 11월 1일 수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테너 강학윤 성악클래스
010-9287-6350



남구문화원 음악회 회장 이자 남부산청솔합창단 지휘자인 테너 강학윤이 지도교수로 있는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악아카데미는 호흡법, 발성법, 발음 등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아마추어 성악가들을 양성해오고 있다.

- 지도교수/테너 강학윤
- 음악코치, 피아노/윤민화
- 소프라노/박순희, 박혜정, 서장희, 김정자, 김경림, 이명희, 정창영, 백규원, 김혜숙, 박세실리아, 조혜주
- 협연/위드앙상블(바이올린 김푸름·정다혜, 첼로 최주원·이강수)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일 시 | 11월 2일(목) 오전 10:30, 오후 7:30,
5일(일) 오후 5:00, 10일(금)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지역 공연예술에 활기를 불어넣을 특별한 무대,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처음 기획한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는 부산지역 예술인과 발을 맞춰 우수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역 공연예술계의 창작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부산지역 예술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2일(목) 분홍신 그 男子 2030
1995년 창단된 후 활발한 창작활동을 펼쳐온 김옥련발레단의 무대.

창작발레 '분홍신 그 남자 2030'은 발레에 극적 스토리를 더하고 다른 장르 예술가들과의 협업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지난 2008년 초연된 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온 작품이다.

- 안무/김옥련, 박재현

5일(일) 길을 잃다

매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있는 인간 실존에 관해 고민하는 허경미무용단-무무의 창작춤 '길을 잃다'. 한국춤을 기반으로 한 창작춤을 주된 작업으로 하는 허경미무용단-무무는 최근 타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춤 공연의 정형성을 탈피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극장공간을 벗어난 다양한 춤 공연 시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연출, 안무/허경미

10일(금) 수구루지

무용, 판소리, 전통연희, 그림동화가 어우러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무용극. 2014년 창단한 Dance Project EGERO(에게로)는 코믹, 위트, 유머를 중시하는 현대무용단체로, 협업과 실험적 도전을 즐기며 극장과 거리의 경계를 넘나드는 넓은 스펙트럼을 추구하고 있다.

- 연출, 안무/이용진

최민경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2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최민경 010-9496-2687



작곡가의 의도를 완벽히 표현하며 섬세한 감성과 다양한 음색으로 청중에게 감동을 전하는 피아니스트 최민경 독주회.

부산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독, 트로싱겐 국립음대를 거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음악원,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를 졸업한 최민경은 그동안 솔리스트로서 실내악, 가곡 및 오페라 연주자, 찬양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최민경은 현재 (사)부산창작오페라단 사무국장 및 오페라코치, Concert Pianist, 부산피아노듀오협회,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작곡그룹 Anti Stimmung 연주이사, 은향교회 호산나 찬양대 반주자로 활동하며 부산대, 경성대, 동의대, 고신대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작곡/조희주, 박기섭, 진비인
- 오보에/권성은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 Friendly Concert

일 시 |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올해로 창단 5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매년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합창문화를 선도하고자 마련해온 부산청소년합창제 2023년 무대.

첫날인 3일에는 사직여자중학교 합창단, 정관초등학교 합창단, 정관 소년소녀합창단, 범어사어린이합창단,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북구 소년소녀합창단과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하며 참가팀이 모두 참여하는 연합무대를 통해서 화합하고 교류하는 축제 무대를 꾸민다. 특히 둘째날에는 부산 인근의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의 교류무대를 통해 창단 50주년을 축하하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줌인(Zoom-in) II**

일 시 |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아닌 솔리스트로서의 기량을 선보이기 위해 마련한 무대로, 부산시립교향악단을 대표하는 이은옥 부악장이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함께 무대에 선다. 이은옥은 지난 2003년

제1바이올린 수석 주자로 입단하여 지금은 부악장으로, 20년이 넘도록 부산시립교향악단과 음악 여행을 이어가고 있다. 성민주는 부산시립교향악단 '2013 신춘음악회' 협연자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각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모차르트(오스트리아-고전), 슈베르트(오스트리아-낭만), 브람스(독일-낭만)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윤효영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4일 토요일 오후 2:0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윤효영 010-2783-8627



음악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청중과 소통해온 피아니스트 윤효영 독주회. 명지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효영은 유학시절 크고 작은 독주회와 초청연주회를 통해 관객과 만나왔으며, 박사논문 주제였던 프랑스 작곡가의 곡으로 녹음한 그의 음반은 IPAM(International Piano Archives at Maryland)에 소장되어 새로운 레퍼토리를 찾는 연주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유효영은 현재 부산피아노음악연구회 회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피아노 소나타 제60번
 라흐마니노프/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작품 42
 바버/여행 작품 20 등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창립 27주년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일 시 | 11월 5일 일요일 오후 2: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513-4306



합창음악을 통해 청소년들의 문화정서를 함양하고 나아가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을 위해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매년 마련하는 제14회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 지난 2008년 제1회 대회를 가진 후 올해로 14회를 맞는 대한민국 청소년합창제는 올해 예선을 통과한 5개 종교교 합창단이 본선 경연을 펼친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구호로 출발한 후 올해 창립 27주년을 맞은 단체로, 협회명인 '파라미타'는 불교 보살의 수행덕목인 바라밀다(波羅蜜多)의 인도식 표기(범어)로 '어둠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 본선 참가학교/금정중학교, 장안중학교, 장안제일고등학교, 서면중학교, 향도중학교

강주희 플루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5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파워풀한 소리, 세련된 무대매너와 에너지'로 호평받는 플루티스트 강주희 독주회.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도미, 맨하탄 음악대학 석사과정, 보스턴대학교 박사과정을 졸업한 강주희는 그동안 미국 뉴욕 카네기홀, 링컨센터, 보스턴 심포니홀, 필라델피아 트리니티센터 등에서 다수 독주회 및 앙상블, 협연무대를 가져왔으며 2020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2021 롯데콘서트홀 토요 신진 아티스트 독주회, 2022년 코팩스 아트홀 연세위더스 초청 독주회 시리즈 등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칼 프링링/판타지 작품 55
 마르티누/첫 소나타 작품 306
 이안 클락/최면 등
 • 피아노/이은정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제3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8일 수요일 오후 7:0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 010-6552-2989

초등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그동안 리코더의 연주활동 및 음악교육 방법을 연구하며 30년 넘게 활동해온 부산한새리코더양상별 정기연주회. 소프라니노,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그레이트 베이스를 비롯하여 콘트라 베이스까지 음역별 리코더를 모두 갖추고 있는 부산한새리코더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바로크시대 작곡가 주세페 토렐리의 'Christmas Concerto'을 비롯해 가브리엘 포레의 아름다운 춤곡 'Pavane 작품 50', 쇠렌 지크의 'Pina Ya Phala' 등 다채로운 곡을 통해 리코더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의 향연을 선사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소지로 내한공연

일 시 | 1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오카리나 연주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소지로는 지난 1986년 일본 NHK TV 다큐 '대항하' 테마곡 연주로 단숨에 주목 받았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브리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엔딩곡인 'Always with me' 연주로도 유명하다. 일본 실력파 연주그룹과 동반 내한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늘날 소지로를 있게한 '대항하'를 비롯해 '숲의 메아리', '숲으로 돌아가다', '천공의 오리온', '아베마리아', '별밤의 언덕' 등 국내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소지로의 대표곡들을 들려준다.

제7회 테너 허동권 독창회

일 시 | 11월 9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허동권 010-6533-8192



동아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페로씨 국립음악원, 안코나 시립아카데미, 산타체칠리아 국립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현재 서울 이마에스트리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테너 허동권 독창회.

허동권은 이태리 카루소, 알카모, 비셔 다르떼, 브린디시 국제콩쿨에서 입상하고 경남오페라단 오페라 '나비부인', '카르멘' 오디션 1위, 서울시 오페라단 신진성악가 오디션 1위 등 수차례 경연에서 입상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그동안 지휘자 마르코 발레리, 디에고 크로베티, 금난새, 정지용과 함께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섰으며, 서울시 오페라단 주역단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피아노/이소영 • 사회/허동환

콘서트 오페라 라 보엠

일 시 |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5만원, S석 8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학생 및 3인
 이상 가족 예매 시 30% 할인)
 문 의 | 솔오페라단 1544-9373



‘보헤미안’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 보엠’은 푸치니의 오페라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작품으로, 19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가난하지만 예술로 교감하는 젊은 예술가들의 청춘과 사랑, 아픔을 그린 작품이다. 전 세계 극장의 러브콜을 받는 소프라노 Maria Tomassi, 한국인 최초 런던 로얄 코벤트 가든의 주역으로 발탁된 테너 박지민, 감미로운 목소리로 수많은 국제콩쿠르를 휩쓴 베이스 Dragoljub Bajic 등 국내외 최정상급 성악가들이 센터멘탈 감성과 유려한 선율로 관객들을 매혹시킨다.

- 예술총감독/이소영
- 지휘/Walter Atanasi • 연출/노이름

TDC양상블 정기연주회 고전을 담은 낭만 실내악 II

일 시 |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TDC양상블 010-9332-4207



월 1만원의 기금들을 모아 끼니를 굶는 초·중생을 돕고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전문 클래식 연주단체인 TDC양상블 정기연주회.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랑스 등지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부산 출신의 실력 있는 연주자들로 구성된 TDC양상블은 2011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참신한 기획과 수준 높은 연주로 관객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고전의 형식미와 낭만적 시정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두 작곡가 슈만과 아렌스키의 피아노 5중주를 들려준다.

- 피아노/고영주 • 바이올린/김성민, 오근영
- 비올라/유정주 • 첼로/이지수
- 해설/김후란

Turn Toward Busan 2023 평화물결

일 시 |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한 추모공연.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전 세계인들이 6·25전쟁 참전 유엔군 전사자들이 안장되어 있는 부산유엔기념공원을 향

해 1분간 묵념과 추모행사를 갖는 것으로, 지난 2007년 시작되어 매년 같은 시간에 진행되어 오고 있다. 매년 ‘턴 투워드 부산’에 맞춰 열리는 콘서트에서는 지휘자 김지환이 지휘하는 부경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소프라노 박지현, 메조소프라노 최승현, 바리톤 김종표, 첼리스트 홍승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박성희, 그리고 남구소년소녀합창단이 출연, 유엔참전용사를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무대를 펼친다.

- 사회/아나운서 손지현

2023 (재)부산문화회관 명사초청 아카데미 인문학 마스터 클래스-김형석

일 시 |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1층) 3만원, S석(2층)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대한민국 1세대 철학자 김형석 선생의 강의로 마련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백년 인생(백년을 살아보니)’이라는 주제로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며 지혜로워지는 것임을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올해로 104세 인 김형석 선생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 시카고대학교와 하버드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평생동안 학문연구와 집필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무대에서는 강의와 더불어 부산시립교향악단 클라리넷 수석 장재혁이 모차르트 ‘클라리넷 협주곡’ 제2악장을 들려준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유망주 음악회-Together

일 시 |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3:00, 7:30 챔버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매년 단원들의 기량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올해 신규단원 영입으로 더욱 다양한 앙상블 무대를 선보일 이번 무대에서는 독주에서부터 듀오, 3중주, 4중주, 5중주 등 다채로운 편성의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 이베르/3개의 짧은 소품
 - 폴랑크/피아노트리오 FP 43
 - 베토벤/현악3중주 제2번 작품 9
 - 보르딘/현악4중주 제2번
 - 슈퍼거/비올라와 더블베이스를 위한 듀오 라장주 등
 - 지휘, 지도/백승현(수석지휘자)

숨과심 가을음악회

일 시 |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4:00 대극장
 입장료 |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문 의 | 부산국제예술단 010-3675-7517



지역의 소외계층과 그들을 돕는 손길에 감사하며 음악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숨과심’ 가을음악회. 아름답고 희망찬 부산을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기 위한 이번 무대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학

교수와 전문연주가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대중과 친숙한 클래식, 팝재즈, 대중가요 등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사한다.

- 음악감독, 소프라노/이은경
- 연출감독/최준
- 바리톤/한규원 • 베이스/김태경
- 보컬/최준 • 색소폰/황태룡
- 피아노/박제나 • 진행/김지현
- 연주/현악사중주 아니모, 최준밴드, 하나로 힐링보이스

리처드 윌트컴 장군 오페라 갈라 추모음악회 오페라 푸른 눈의 선한 사마리안

일 시 |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사)부산창작오페라단 010-3765-0917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윌트컴 장군 (1894~1982)을 기리는 추모음악회.

2030 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기원하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헌신한故 리처드 윌트컴 장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무대를 마련한다. 윌트컴 장군은 6·25전쟁 후 유엔군 부산군수사령관을 지내며 부산의 재건과 함께 최초의 종합 국립대학인 부산대가 교육 터전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정전 후 부산 시내 교량 및 도로포장 등 인프라 확충과 메리놀병원·성분도병원 등 부산지역 의료기관 건립에 힘썼다. 특히 전쟁고아들을 위한 보육원과 고아원에 관심을 기

울어 '전쟁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다. 윌트컴 장군은 지난 1982년 89세 나이로 영면하면서 '한국에 남고 싶다'는 유언에 따라 유엔기념공원에 부인 한묘숙 여사와 함께 안장됐다. 한편, 윌트컴 장군 조형물 건립을 위한 시민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그의 뜻을 기리는 동상을 건립한다는 취지로 '1인당 1만원씩 총 3억원' 모금 운동을 시작하여 지난 6월, 목표액을 달성했으며, 11월 11일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식에 맞춰 시민들에게 조형물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윌트컴 장군의 숭고한 삶을 그린 단막음악극과 오페라 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그리운 금강산, 청산에 살리라, 비목, 에메이징 그레이스, 넬라 판타지아, 단막음악극 '리처드 윌트컴, 폐허에 사랑의 불을 지피다', 오페라 '푸른 눈의 선한 사마리안, 리처드 윌트컴 장군'

- 원작/오상준 • 대본/김문홍
- 작곡/조희주
- 소프라노/황신영 • 테너/양승엽
- 바리톤/안세범
- 피아노/최민경 • 오보에/권성은
- 배우/유상훈, 송순임

제25회 남구문화예술회 음악회 정기연주회 오륙도 평화음악회

일 시 | 11월 15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남구문화예술회 010-9287-6350



부산 남구의 지역예술인들이 매년 마련하는 오륙도 평화음악회. 올해로 25회를 맞는 이번 음악회는 지역의 대표적인 성악가와 국악인, 합창단이 출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시민들과 만나다.

프로그램

- 제비노정기(홍보가), 첫사랑(김효근), 아침의 노래(레온까발로), 넌 왜 울지않고(쿠르티스), 신고산타령, 다향(지원석) 등 수곡
- 소프라노/최훈녀, 남상임
 - 테너/강학운, 하병욱
 - 피아노/손혜진, 고영주
 - 가야금병창/최유진 • 대금/김동현
 - 합창/남부산농협 청솔합창단(단장/박순희, 지휘/강학운, 반주/손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222회 정기연주회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경상북도 도립국악단 교류음악회

일 시 |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1층) 2만원, S석(2층)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영남권의 대표적인 국악단체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이 만나 펼치는 교류음악회로, 상임지휘자 박경현이 이끄는 경상북도 도립국악단의 1부 무대에 이어 2부에서는 이동훈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연주가 펼쳐진다.

1부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 지휘/박경현 • 해금/최윤정

2부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지휘/이동훈 • 대금/손한별
- 소리/정선희 • 소프라노/김하정

소프라노 이은미 독창회 장미와 피꼬리의 노래

일 시 |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이은미 010-8277-4746



서정적이고 온화한 음색을 지닌 소프라노 이은미 독창회. 신라대학교를 졸업하고 월간 객석 주최 우수 신인음악회로 데뷔한 이은미는 중학교 교사를 거쳐 도이, 노바라 귀도 칸텔리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자 과정을 거쳐 프랑스 니스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했다. 이탈리아 주요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유럽에서 활동하다 귀국한 이은미는 현재 이탈리아음악연구회 회장, 간판때 부산 총무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화려한 테크닉적 기교와 서정적이고 풍부한 음악성을 바탕으로 한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 피아노/최성근 • 플루트/유혜성
- 해설/김태형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5회 정기연주회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일 시 |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세계 3대 지휘 콩쿠르에서 모두 우승한 세계적인 거장 샤오치아 루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5회 정기연주회.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의 협연으로 러시아의 대표적 작곡가 프로코피

예프와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려준다. 다만 출신의 지휘자 샤오치아 루는 오페라 지휘자로서 뿐만 아니라 콘서트 무대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바 있다.

프로그램

- 프로코피예프/바이올린 협주곡 제2번
라흐마니노프/교향곡 제2번

고신 클라비어 제4회 정기연주회 피아노 앙상블 콘서트

일 시 |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고신 클라비어 010-3311-0153



고신대학교 피아노 전공 졸업생들로 구성된 고신 클라비어의 4번째 정기 연주회.

올해로 창단 4주년을 맞는 고신 클라비어는 매년 지속적인 연구와 연주회를 통해 지역 음악 발전에 앞장서왔다.

‘피아노 앙상블 콘서트’라는 부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1부 오페라 앙상블에 이어 2부에서는 피아노 앙상블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연주/안선애, 김미영, 이현정, 박민경, 김주아, 이상미, 강현아, 박지승, 윤선훈, 조성희, 류희영, 최폴린
- 특별출연/바리톤 허중훈

소프라노 정애린 귀국독창회

일 시 |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6: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정애린 010-9711-9116



고전부터 현대까지, 청아한 고음을 자랑하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 정애린 귀국독창회.

정애린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국립음대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독일 SWR Classic 국영방송극 프리랜서 단원, 부산

시교육청 예술영재원 성악강사, 대구오페라하우스 영아티스트 단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독일 코리아재단 소속 성악가로 다채로운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콜로라투라 소프라노의 대표 곡인 올림피아의 ‘인형의 노래’를 중심으로 국내 외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김정희
- 콘서트가이드/정희라, Rene Solzbacher

제18회 최낙주 플루트 독주회

일 시 |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최낙주 010-4536-2351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부산우드윈드앙상블 멤버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티스트 최낙주 독주회.

경북대학교 음악학과와 독일 도르트문트 국립음대 석사과정을 졸업한 최낙주는 대학시절 첫 독주

회를 시작으로 독일과 대구, 부산에서 그동안 17차례 독주회를 가져왔으며, 듀오무대를 비롯해 수차례 협연무대를 가진 바 있다.

현재는 동의대학교, 부산예고에 출강하며 후진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프로그램

- 크라이슬러/아름다운 로즈마린, 사랑의 슬픔, 사랑의 기쁨
- 도플러/안단테와 란도 작품 25
- 파가니니/카프리스 제24번 등
- 피아노/장효진 • 플루트/이시헌

2023 부산불교합창제

일 시 | 11월 21일 화요일 오후 6:30 **중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 867-0501



찬불가 보급과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사찰합창단의 합창무대 ‘2023 부산 불교합창제’.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가 지난 2012년부터 열어온 부산불교합창제는 그동안 전통음악의 새로운 해석과 표현으로 유익한 볼

거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해왔다.

올해 무대에서는 범어사, 영주암, 선암사, 불지사, 대광명사, 정각사 소속 사찰합창단의 무대와 부산불교연합창단, 풍물밴드 ‘이상’의 특별공연을 통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부산시립합창단 제1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 엘리야

일 시 |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립합창단이 세계 3대 오라토리오 시리즈 마지막 무대로 마련하는 멘델스존의 ‘엘리아’는 대규모 합창과 오케스트라는 물론 연주시간만 2시간 30분에 달하는 대작이다.

예술감독 이기선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정혜민,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이광근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깊은 울림이 있는 진한 감동의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이기선(예술감독)
- 소프라노/정혜민 • 메조소프라노/김선정
- 테너/최상호 • 바리톤/이광근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소프라노 이수진 독창회 유라시아로 떠나는 여행기, 못다한 이야기

일 시 |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문 의 | 이수진 010-2817-1910



음악을 본연 그대로 사랑하는 소프라노 이수진의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소프라노 이수진은 부산대학교와 이탈리아 레스피기 국립음악원을 졸업하고 오페라 ‘미술피리’ 중 ‘밤의 여왕’으로 부산 음악계에 데뷔한 후 오페라 주

역으로 활동하며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1부에서는 한국가곡을 시작으로 오페라의 고장인 이탈리아로 떠나 오페라 ‘라보엠’의 한 장면을 감상한 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낭만시대의 작곡가 리스트의 아름다운 소네트 중 가장 유명한 ‘Pace non trovo’를 들려준다. 2부에서는 북유럽 작곡가 시벨리우스, 그리그, 알벤 등의 가곡들을 소개하며, 레하르 오페라 ‘죽티타’의 열정적인 아리아로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 해설/김기환 • 테너/김정권
- 피아노/안준희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실험실 프로젝트 르 시드**

일 시 | 11월 24일 **금요일** 오후 7:30, 25일
토요일 오후 5:00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연극의 형식 및 스타일에 대한 새로운 모색을 시도하는 부산시립극단 실험실 프로젝트 '르 시드'. 피에르 코르네유의 '르 시드(Le Cid)'는 외형적으로는 극 전체가 노래로 이루어진 '송 스루(Song Through) 뮤지컬'로, 이번 무대에서는 사랑채 극장의 무대와 객석을 파괴하여 '르 시드'만의 독특한 공간을 창출한다. 특히 연극이 '해석'적 작업이자, '지금 여기'의 예술인 만큼, 남성 위주의 서사를 대폭 삭제하고, 여성 등장인물들이 주도적으로 눈물만 흘리는 역할에서 벗어나 주요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작품을 새롭게 각색했다.

- 각색, 연출/김지용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유자왕 피아노 리사이틀**

일 시 |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13만원, S석 10만원, A석 8만원,
B석 6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최대 2매에 한해 5%, 초·중·고·대학생 본인만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들을 만날 수 있는 (재)부산문화회관의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두 번째 무대. 괴물 같은 테크닉과 깊이 있는 해석, 객석의 혼을 빼놓는 무대 매너로 전 세계 음악팬들을 사로잡고 있는 '21세기 건반의 여제' 피아니스트 유자왕이 부산을 찾는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연주곡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베일링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만나는데, 유자왕은 지난해 가진 첫 내한 리사이틀에서도 같은 형식의 흥취적인 무대와 10곡 이상 앙코르 곡을 연주하는 파격으로 한국 관객들을 매료시킨 바 있다.

김해옥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해옥 010-3859-9822



1995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9차례 독주회를 통해 독일 낭만 작곡가의 작품과 다양한 레퍼토리를 심도있게 연주해온 피아니스트 김해옥 독주회. 신라대학교 음악학과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동안 독주 및 듀오 등 다양한 무대에 서은 김해옥은 2014년 부산음악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아나체크 및 드뷔시 프렐류드 전곡 연주를 통해 자연과 회화적 영감을 주는 음악세계를 선보인 김해옥은 이번 무대에서 마음의 분향 같은 슈베르트의 곡과 더불어 풍부한 상상력과 철학이 담긴 드뷔시의 '프렐류드 II'를 들려준다.

**제이스 스트링 콰르텟 연주회
라주모프스키 Razumovsky**

일 시 | 11월 29일 **수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제이스 스트링 콰르텟 746-2023



바이올리니스트 조혜련, 이진, 비올리스트 김민영, 첼리스트 심아라로 구성된 제이스 스트링 콰르텟(JACE String Quartet)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베토벤이 당시 빈 궁정에 머무르고 있던 러시아 대사 안드레아스 라주모프스키 백작에게 헌정한 현악4중주 작품 59 '라주모프스키' 중 제1번과 제3번을 들려준다. '라주모프스키'는 당시 췌병의 악화로 인간적으로나 음악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베토벤이 더 이상 대중의 취향에 음악을 맞추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를 담은 혁신적인 음악을 작곡하겠다는 탄생을 담은 혁신적인 음악을 작곡하겠다는 탄생을 담은 혁신적인 음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콘서트 가이드/안시연

코로나19 극복 힐링 음악회

일 시 |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광역시사회 242-8479



지역민의 건강과 의료 복지를 위해 힘써온 부산광역시사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마련한 힐링 음악회. 이번 무대에서는 2010년 창단 후 바로크에서 현대 음악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온 앙상블 코스모폴리탄과 창원대학교 외래교수로 있는 소프라노 김리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외래교수이자 국립오페라단 솔리스트로 있는 테너 강도호, 신라대학교 겸임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홍선화, 그리고 안무가 김현정이 특별출연, 다채로운 무대를 꾸민다.

프로그램
바르톡/루마니안 포크 댄스
모차르트/피아노협주곡 제20번 K.466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작품 40 등

- 사회/아나운서 서희정

**BS부산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송년음악회
오페라 아리아의 밤**

일 시 |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VIP 7만원,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사)부산문화 1600-1803



공연기획사 '부산문화'가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의 의미를 담아 마련하는 2023 송년음악회. 올해 창단 후 의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BS 부산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성악가 테너 김지호, 김준연, 이태훈, 바리톤 이태영, 소프라노 박현진, 김아름, 김가은이 오창록이 지휘하는 더뉴앙상블의 연주로 우리에게 친숙한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레온카발로/오페라 '팔리아치' 중 '의상을 입어라'
푸치니/오페라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등 수곡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일 시 | 12월 1일 금요일 오후 9: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기존 공연시간의 틀을 깬 저녁 9시,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의 지휘로, 음악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가을 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파리국립교향악단, 라디오프랑스교향악단 객원을 역임하고 현재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이 수준 높은 콘체르토를 시민들에게 들려준다.

프로그램

생상스/첼로협주곡 제1번 가단조
 스트라빈스키/폴치넬라 모음곡

(재)부산문화회관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일 시 | 12월 2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열정과 재능을 갖춘 지역 청년예술인을 발굴하고 예술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부산문화회관이 마련한 청년희망날개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되는 무대로 지난 10월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5명의 청년 성악가들이 무대에 오른다.

1부에서는 오디션 합격자들이 주옥같은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이며, 2부에서는 부산성악가협회 선배 성악가들이 희망과 응원의 무대를 펼친다.

- 지휘/권영기, 채범석
- 소프라노/김리라, 박성익
- 테너/성민기 • 바리톤/김경한, 황동남
- 게스트/소프라노 노서윤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볼프강

일 시 | 12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수석지휘자 백승현이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 한 명으로 추앙받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곡으로 꾸민다.

협연을 맡은 플루티스트 조성현은 2019년 연세대학교 관현악과의 최연소 조교수로 전격 발탁됐으며, 현재는 금호솔로이스츠, 일본 산교 플루트 아티스트, 플루트아트센터(FAC)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연을 맡은 플루티스트 조성현은 2019년 연세대학교 관현악과의 최연소 조교수로 전격 발탁됐으며, 현재는 금호솔로이스츠, 일본 산교 플루트 아티스트, 플루트아트센터(FAC) 음악감독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KV.138
 모차르트/플루트 협주곡 제2번 KV.314
 모차르트/교향곡 제41번 '주피터'

부산시민회관

2023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일 시 | 11월 3일 금요일 오후 7:30, 4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14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주요 연극상을 휩쓸며 언론과 관객의 찬사를 받아 온 국립극단 대표 레퍼토리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지난 2015년 처음 무대에 오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은 중국 원나라의 작가 기군상이 쓴 고전 희곡을 연출가 고선웅이 직접 각색, 원작의 비극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특히 국립극단이 실시한 '국립극단에서 가장 보고 싶은 연극' 설문에서 압도적 표 차로 1위를 차지, 국립극단 창단 70주년 기념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연극 집을 떠나며

일 시 |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11일-12일 토-일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가족이라는 구성원이 전쟁과 자본에 의해 파괴되어지는 현상과 아픔을 그린 연극 '집을 떠나며'.

개인과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여다 보고 보여지는 진실의 그 실체에 다가서는 작품으로, 2015 일본 동경 타이니 아리스 페스티벌 초청작, 2016 광주 국제평화연극제 초청작, 2016 대한민국소극장열전 초청작, 연극집단 반 20주년 기념작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스 페스티벌 초청작, 2016 광주 국제평화연극제 초청작, 2016 대한민국소극장열전 초청작, 연극집단 반 20주년 기념작으로 무대에 오른 바 있다.

- 작, 연출/박장렬
- 출연/김상훈, 박승규, 황미애, 조정우, 조한별, 최혜리, 차지예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가족무용극 여우와 돌고래

일 시 |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소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민회관 630-5200



눈을 땀 수 없게 만드는 섬세한 몸짓과 그 속에서 만나는 이슬우화로 관객들에게 진한 감동을 전하는 가족무용극 '여우와 돌고래'.

현대무용을 기반으로 관객과의 소통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활동하는 '고블린파티'가 제작한 이번 작품은 현대무용에 동화구연과 영상을 활용한 해설이 있는 공연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육지를 거니는 여우와 바다를 헤엄치는 돌고래가 해안선에서 만난다. 두 창작자는 작품 속에서 여우와 돌고래가 되어 서로의 틈을 느끼고 틈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며 그 틈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며 성장한다.

음악

**바로크 양상을 카운터테너 김대경 독창회
Hortus musicus 음악의 정원 시리즈 3
안개꽃**

일 시 | 11월 4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바로크 양상을 동백 010-5474-3667



바로크 양상을 동백 대표
이자 Arts company PAN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카운터테너 김대경
독창회.

부산에서는 좀처럼 연주
되지 않는 바흐의 성악곡
중 솔로 칸타타로 꾸민
이번 무대에서는 '안개꽃'

이 가지는 순수한 사랑, 맑은 마음 상징적 주
제를 바흐의 종교음악으로 들려준다.

- 바로크 바이올린/최윤정, 김민경
- 바로크 비올라/전혜성, 최하람
- 비올라 다 감바/강효정 • 트라베소/김민서
- 바로크 오보에/신용천
- 포지티브 오르간/아렌트 흐로소펠트

**한국전 참전UN군 후손 장학기금조성
색소폰 거리연주회**

일 시 | 11월 4일(토), 11일(토) 오후 6:00
서면 영광도서 앞 분수대
문 의 | 이학춘 248-7012



CBMC(기독교실업인회)
부산지회, 한국전 참전
UN군 후손장학회가 주
관하는 한국전 참전UN
군 후손 장학기금조성
색소폰 거리연주회.

매월 첫째주, 둘째주 토요일 열리는 이번 무대
에서는 한국프로색소폰중앙협의회와 반올림색소
폰동호회, 소나무색소폰동호회가 출연하며, 특
히 첫째주 토요일에는 지역의 저명음악가들이
동참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 출연/도용복(성악, 사라토가 회장, UN후손장
학회 공동이사장), 김지호(테너, 부산성
악협회장), 박성환(바리톤 색소폰, 대동
병원장), 황용창(아코디언), 장선아(첼로,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성형원
(타악기,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단원)

게네랄파우제 11월 공연

일 시 |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7:00
18일은 오후 3:00, 7:00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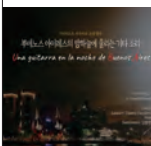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
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11월 무대.



**2일(목) 오후 8:00 Swingin'
at Thursday night**

베이스스트 진의진을 주축으
로 조민형(테너 색소폰), 탁경
주(기타), 이찬우(드럼)로 구성
된 진의진 쿼텟의 무대.

일주일 중 가장 힘든 목요일 저녁, 일상에 지친
관객들에게 신나는 스윙음악을 선보인다.



**3일(금) 오후 8:00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밤하늘에 울리는
기타 소리**

아르헨티나 전통음악과 탱고
를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는 라
우타로 티세라 파발로로와 반도네이스트 김종완
의 무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세대로 떠오르는 연주자와
작곡가들을 소개하는 자리로, 솔로 기타를 위한
탱고, 밀롱가 등 대중적인 곡들을 들려준다.



4일(토) 오후 7:00 Mr. Magic

기타리스트 이달현, 베이스스
트 박지원, 드러머 윤혁성으로
구성된 이달현트리오에 피아
니스트 조수임, 색소포니스트
김승모가 합류하여 이달현트리오+2라는 팀명으
로 다채로운 무대를 펼친다.

**9일(목) 오후 8:00 월간 민주신-갯대경과 함께
하는 재즈 듀오!**

게네랄파우제와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이 매월
한 차례 마련하는 '월간 민주신'.
매월 새로운 뮤지션을 초청, 그의 음악 이야기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는 무대로, 11월에는 콘트라베
이스스트 김대경이 그의 자작곡을 들려준다.



**10일(금) The greatest love
of all**

피아니스트 강대현이 들려주
는 슈만의 사랑 이야기와 이에
얽힌 다양한 감정을 피아노 연
주로 들려준다.

프로그램

- 슈만/환상 소품집 작품 12
- 슈만/세 개의 환상 소품집 작품 111
- 슈만/유령 변주곡 WoO 24

11일(토) 오후 7:00 Winter Romance
피아니스트 이아정, 박희진으로 구성된 피아노 듀
오 리베르떼의 무대.
'Winter Romance'라는 주제로 겨울 사랑노래
가 담긴 클래식과 영화, 드라마 OST를 1 piano 4
hands로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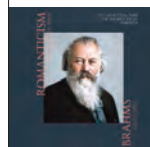


**17일(금) 오후 8:00 심리아,
음악하고 놀자**

지난 2019년부터 게네랄파우
제와 허쉬밴드가 공동기획으
로 마련해온 '심리아, 음악하고
놀자'.

리더이자 감성드러머 허여정
과 보컬 이다희, 트럼본 심규성, 피아노 김수지나,
베이스 황대웅, 스토리와 아코디언 김선영으로 구
성된 허쉬밴드는 플로어타임이라는 이론에 근거
한 스토리텔링과 관객들이 현장에서 작성하는 사
연카드를 즉흥적으로 공연무대를 펼친다. 플로어
타임은 스탠리 그린스피인의 발달이론으로, 인간이
평생 발달한다는 전제로 관계에서의 '놀이'의 힘
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1+1, 부제:관계와 조율'이라는 타이
틀로 '플로어타임'을 주제로 특별한 공연을 펼친다.



**18일(토) 오후 3:00 유지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Romanticism'
한달에 한 번 토요일 낮에 열
리는 게네랄파우제의 마티네
콘서트 '유지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11월 무대에서는 콘서트 가이드이자 클라리네티스
트로 활동하고 있는 유지훈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
서 자신의 음악정신을 이어나간 고전주의 햇불의
수호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18일(토) 오후 7:00 La fin de
l'automne(가을의 끝자락)**

부산의 재즈 1세대 최은아 트
리오가 늦가을의 서정을 담아
들려주는 재즈 무대.

- 보컬/최은아
- 피아노/장세연
- 베이스/신세영



**24일(금) 오후 8:00 FUSION
#2:GUITARIST OF
FOURPLAY 콘서트**

퓨전재즈의 살아있는 전설
'Fouplay'를 거쳐간 3명의 기
타리스트 'Lee Ritenour', 'Larry Carlton', 'Chuck
Loeb'의 트리뷰트 콘서트.

현대 재즈계에 큰 영향을 끼친 세 거장의 음악을
홍영호 쿼텟의 사운드로 들려준다.

- 기타/김경모
- 색소폰/손태호
- 피아노/강혜인
- 베이스/신세영
- 드럼/홍영호

11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8일·15일 공연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올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은 금정문화회관이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관객과 만나는 상설무대 '금정수요음악회' 11월 무대.

1일(제835회) 앙상블 라인의 창조(CREATION)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을 중심으로 클래식의 본고장 독일에서 유학한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된 앙상블 라인의 무대. 앙상블 라인인은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교류하고 더 나아가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교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공공

문화예술 기획 집단을 지향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 공연예술단체로, 지난 2020년 6월 25일 창단 후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라인(Rein)'은 독일어로 '순수', '완전한'이라는 뜻.

- 바이올린/최종완 • 첼로/방지성
- 플루트/안병건 • 클라리넷/이환석

• 바순/김영두 • 피아노/추교준, 이수정 22일(제836회) 이리나 바이올린 독주회



창원시립교향악단 부악장으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독주회. 예원학교 재학중 도미, 뉴욕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줄리어드 음대(학사)를 졸업하고 영국 왕실 음악원과 미국 메네스 음대에서 석사 및 최고연주

자과정을 졸업한 이리나는 1994년 뉴욕에서 열린 Young International Artists 콩쿨에서 우승, 카네기홀에서 뉴욕 데뷔 독주회를 가진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늦가을의 정취와 잘 어울리는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과 3번을 들려준다.

- 피아노/박민선

29일(제837회) 4인 4색



테너 김경민, 신대현, 소프라노 박보희, 김민성이 서로 다른 매력적인 음색을 선보이는 '4인 4색'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가곡 및 뮤지컬 넘버,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 피아노/안현아

전은지 플루트 리사이틀 아름다운 여정

일 시 | 11월 5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프로젝트 앙상블 Flutèz 010-5327-6025



섬세한 음악성과 작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주로 청중과 교감하는 플루티스트 전은지 독주회.

전은지는 오스트리아 부르겐란트 주립음대에서 최고연주자과정 및 동 대학원, 악기교육학과를 수석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헝가리 등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해오다 지난 1999년 귀국독주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 프로젝트 앙상블 Flutèz를 창단, 매년 정기연주회를 통해 현악기와 플루트의 다양한 곡들을 소개해오고 있는 전은지는 이번 무대에서 현대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김영실 • 기타/김경태

바리톤 최성규의 가을밤 가곡이야기

일 시 |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아트락 010-5468-4658



부산시립합창단 수석단원으로 있는 바리톤 최성규의 무대.

경성대학교와 이탈리아 C.S.M Accademia, Arena Accademia를 졸업한 최성규는 그동안 독창회를 비롯 오페라 주역 및 오라토리오 독창자

로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더 부산콘서트 콰이어, 영아츠 앙상블과 함께 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가을의 정취와 어울리는 다채로운 가곡들로 깊어가는 가을밤, 바리톤의 따뜻한 음성으로 옛 추억을 떠올리는 시간을 갖는다.

- 지휘/전상철 • 피아노/이승윤
- 특별게스트/바리톤 최용현

제6회 유니타드 코리아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비틀어진 세계 속 '영도'

일 시 |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무료(홈페이지 사전예매 필수)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어린이 환자들을 돕기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을 중심으로 지난 2006년 설립된 민간 자선 오케스트라인 UKO(유니타드 코리아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특히 이번 무대는 현재 인류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음악을 통해 되새겨보는 특별한 무대로, 계절의 순환과 자연 속에서의 온갖 생명과 인간의 삶이 깃든 모습을 표현한 비발디 '사계'를 주 테마로, 기후 위기 속 급격한 변화를 음악을 통해 보여준다.

- 지휘/오창록 • 바이올린/시명운
- 환경활동가/이승미
- 진행/강이안

고태국 음악비건립 15주년 기념 고정화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7일 화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원로음악가회 010-3779-9234



한국피아노학회 상임고문,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명예회장이자 부산교육대 명예교수로 있는 피아니스트 고정화 독주회. 고정화는 부산음악상, 제 24회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주최 최우수예술인상, 한국음악상 본상, 제

22회 부산예술대상을 수상하고 부산피아노연주자클럽,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초대회장, 부산음악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번 무대는 지난 2008년 건립한 고태국 음악비건립 15주년을 기념하는 무대로, 작곡가 김보현의 창작곡 '그림자(세계 초연)'를 비롯해 슈만-리스트, 차이콥스키, 사라사테, 슈베르트, 쇼팽의 곡을 들려준다.

- 바이올린/오난숙 • 피아노/유영욱

김창돈 지휘자와 한울림합창단의 가요합창콘서트

일 시 | 11월 10일 금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가
 요를 합창음악으로 만날
 수 있는 가요합창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1978
 년 창단된 후 2005년 부
 산광역시 전문예술단체
 로 지정된 한울림합창단
 이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
 산항에, 단발머리,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바람의 노래'를 비롯해 정훈희
 '꽃밭에서', 이문세 '가을이 오면', 최성원 '제주도
 의 푸른 밤', 전인권 '걱정말아요 그대', 임영웅 '사
 랑은 늘 도망가', 조항조 '고맙소', 인순이 '거위의
 꿈'까지 197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는 친숙
 한 가요를 합창으로 들려준다.
 한울림합창단 지휘자로 있는 김창돈은 현재 부
 산시립합창단 단원이자 합창단 지휘자로 다양
 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52회 짜장콘서트 나, 너 그리고 우리의 노래 IV

일 시 |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4: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청소년 및 10명
 이상 단체 50% 할인)
 문 의 | 음악경쟁 기획실 987-5005



지역에서 비약적인 활약
 상을 펼치고 있는 청년음
 악가 김경한, 최주영의 무
 대로 마련되는 제52회 짜
 장콘서트.
 현재 메츠클라, 라벨코프
 보컬로 있는 김경한은 그
 동안 오페라, 뮤지컬 등
 다수 무대에 참여했으며,
 JTBC 팬텀싱어3에 출연한 바 있다. 최주영은 계
 명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
 하고 현재 전문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다.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이 지난
 2019년부터 열어온 짜장콘서트는 사전예약제
 로 운영되며, 회원에 한해 선착순 예약자 24명
 에게는 짜장면 식권을 제공하고 있다.
 • 진행/이진아 • 피아노/정은희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시그니처 콘서트 8 Romantic with 안명주

일 시 |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부산솔로이스츠앙상블 010-8524-0069



2015년 부산대학교 음악
 학과 동문 연주자들로 결
 성된 부산솔로이스츠앙
 상블은 지휘자 없이도 건
 고하고 완벽한 앙상블을
 소화하며, 현악앙상블을
 메인으로 소규모 앙상블
 에서부터 체임버오케스
 트라,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편성과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남대학교 기악과 교수이자
 코리아 플루트 솔로이스츠 리더, 앙상블 디버스,
 세종목관5중주 단원으로 자신만의 개성있는 음
 악적 기교와 재능을 선보여온 플루티스트 안명
 주와 함께 모차르트 '아다지오와 푸가 K.546',
 '플루트협주곡 KV.313', 보르딘 '현을 위한 심포니
 아'를 들려준다.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제24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12일 일요일 오후 4: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청소년리코더합주단 010-2562-6561



지난 2000년 창
 단 후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 다
 양한 리코더 합주
 를 선사해온 부산
 청소년리코더합주단은 리코더의 전성기였던 바
 로크곡과 클래식은 물론 가요, 재즈, 국악, 동요 등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해오고 있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미하엘 프레토리우스
 가 춤의 여신 테르프시코레라는 이름으로 작
 곡한 춤곡 모음곡을 통해 Passameze, Ballet,
 Spagnoletta 등 르네상스 댄스곡을 감상할 수
 있다.
 • 지휘, 예술감독/강희숙
 • 협연/엄준서(동래여중 1학년)
 • 소프라노/윤소망 • 첼로/이재성
 • 손보현/채발로 • 타악기/최원택

2023 을숙도 예술공감

일 시 | 11월 14일(화), 21일(화)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5814



다양한 프로그램과 수준
 높은 공연으로 지역 주민
 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
 는 2023 을숙도 예술공감.
 14일(제37회) 진민진 제5회
 아쟁 독주회 '아쟁 더하기
 시나위'
 부산의 대표적 젊은 아쟁
 연주자 진민진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아쟁이 가진 깊은 울림과 시나
 위의 즉흥성을 통해 우리 민속음악을 심도 깊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다.
 21일(제38회) GUESS WHAT?!-숨어있는 음악
 을 맞춰봐!
 작곡가들로 구성된 '피스 오브 클래식'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빛나는 무대.
 여러 장르의 음악을 통해 음악의 다양성과 즐거
 움을 알 수 있도록 음악에 숨어있는 다른 음악을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정주연 열네번째 Flute Recital Flute, be with you

일 시 | 11월 16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Korea wind consort 멤
 버이자 KNN 방송교향악
 단, 부산심포니오케스트
 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
 는 플루티스트 정주연 정
 기연주회.
 부산예고를 졸업하고 도
 미, 피츠버그 듀케인대학
 교에서 철학, 미술, 사회
 학, 종교학 등 다양한 학문을 수학하여 음악적
 소양을 넓힌 정주연은 부산시립교향악단, 로얄
 심포니오케스트라 등과 협연무대를 가졌으며,
 귀국 후 매년 독주회를 통해 관객과 소통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20세기 초 독일 작곡가인 카르
 크-엘레르트를 비롯해 도플러, 차이콥스키, 피에
 르 상카의 곡을 들려준다.
 • 플루트/이시후 • 피아노/안준희

배현지 가야금·철현금 독주회 현의 변화

일 시 |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문 의 | 배현지 010-6651-3722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이자 부산철현금보존회, 기성줄풍류보존회, PNU가야양상블 단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야금주자 배현지의 무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배현지는 그동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7회 청소년 협연의 밤, 경주시립신라고취대 특별공연 '2022 젊은 국악협연자의 밤', 2022 을숙도 힐링콘서트 '청춘이색'을 통해 관객과 만나왔다.

프로그램

최옥삼류 가야금 짧은 산조, 체스놀이(이지혜, 김준영 공동 작곡), 철현금 독주곡 '철현금의 북놀이'(류경화 구성) 등
 • 장구, 북/김성찬 • 거문고/황진호
 • 장·우드드럼/정시우

10회 최미란 가야금 독주회 현상삼심 그리고 흥

일 시 |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최미란 010-6743-2520



매회 섬세하고 힘있는 연주로 가야금의 매력을 전하고 있는 가야금연주자 최미란의 열 번째 독주회. 최미란은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제23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대상(대통령상), 제31회 난계국악경연대회 일반부 금상(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 부산가야금연주단 예술감독, 가야금 앙상블 금원풍류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최미란은 이번 무대에서 한국음악의 편안하고 아정한 선율과 신명나는 장단의 18현 가야금 곡들을 들려준다.
 • 가야금/최미란 • 노래/이아미
 • 대금/손한별 • 장구/송강수
 • 춤/박지애 • 차 시연/강옥희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정기 연주회

일 시 |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0-5489-2913



부산의 유일한 기타오케스트라로 기타의 저변확대에 힘써온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정기연주회.

2002년 창단 후 기타합주 전문 연주단체로 폭넓은 레퍼토리와 완성도 높은 연주를 들려주고 있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은 1부에서는 단원들의 솔로 및 듀오, 사중주 등 다양한 편성의 연주에 이어 2부에서는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의 환상적인 합주무대를 들려준다.
 • 솔로/김현지 • 듀오/서승완, 박주영
 • 사중주/정명교, 황선만, 박수연, 송미영
 • 합주/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상임지휘/김경태, 부지휘/김현아)
 • 협연/김종완(아코디언)

2023 을숙도 힐링콘서트 황병기 명인의 음율, 전통 현악기 축제

일 시 | 11월 20일(월), 22일(수)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5814



천재작곡가 황병기 명인의 주옥같은 작품을 시리즈로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황병기 음악에 담긴 철학을 통해 잠시나마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는 이번 무대는 음악을 통해 전통의 단순한 계승이 아닌 창작음악의 발전을 엿보며 그 안에 담긴 전통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통해 전통 음악의 지침서를 마련할 수 있다. 부산대학교 한국음악과 김남순 명예교수의 해설로 '밤의 소리', '비단길', '춘설', '영목' 등 황병기 명인의 대표곡을 통해 가야금 연주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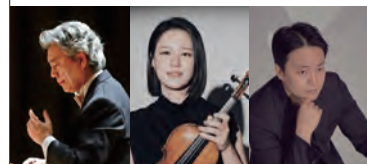
제90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제55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23일 목요일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은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초청으로 마련되는 제90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온화한 카리스마의 마에스트로 오충근이 이끄는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는 명실공히 한국의 대표적 민간 오케스트라로, 관객 우선의 참신한 기획과 다양한 연주로 클래식 팬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모차르트의 곡으로 꾸며지는 이번 무대에서는 국립보경대학교 석좌교수로 있는 오충근 예술감독의 지휘로 오페라 '티토 황제의 자비' 서곡 K.621과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 비올리니스트 김규현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신포니아 콘체르탄테

K364', 그리고 교향곡 제35번 '하프너를 들려준다. 바이올리니스트 윤은솔은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사 및 석사, 뮌헨 국립음대 마스터, 마이스터 졸업 및 동 대학 실내악과정 마스터, 바젤 국립음대 실내악과정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포스타치니 국제콩쿠르 우승, 토론토 국제콩쿠르 3위, 독일 앙리 마르토 국제콩쿠르 특별상 수상 등 다수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한 바 있다. 현재는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에 빛나는 아벨 파르렛의 바이올리니스트로 활약 중이다. 비올리니스트 김규현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 독일 베를린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피에르 볼레즈홀, 쾰른 필하모니, 뮌헨 헤라클레스홀, 영국의 위그모어홀, 빈 무직페라인 등 세계 유수 공연장에서 초청연주를 가져왔다. 현재는 노부스 파르렛의 비올리니스트로 활동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외래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 예술감독, 지휘/오충근
 • 바이올린/윤은솔 • 비올라/김규현



강대현 피아노 독주회

일 시 |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강대현 010-4691-4994



송국클럽하우스 음악고문이자 부산현대음악앙상블 단원, 인제피아노사이어티 대표, 천마피아노연구회 회원, (사)한나래문화재단 예술강사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강대현 독주회.

강대현은 인제대학교 음악학과 박사과정과 독일 드레스덴 국립음대 석사과정,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음악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그동안 12차례 독주회를 비롯해 다양한 무대에서 관객과 만나왔다.

13회를 맞는 이번 독주회에서는 슈만의 초기 작품과 정신희환으로 저평가받고 있는 말기 작품을 들려준다. 특히 이번 무대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을 초청, 음악을 통한 위로를 전한다.

쇼팽, 탱고를 만나다

일 시 |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의 | 친친탱고 010-7171-2834



부산을 대표하는 탱고 앙상블 '친친탱고'가 마련하는 클래식과 탱고의 특별한 만남 '쇼팽, 탱고를 만나다'.

작곡가이자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 피아니스트 이안나, 바이올리니스트 강소연, 비올리니스트 정하

람으로 구성된 친친탱고는 2020년 창단된 누에보탱고 앙상블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탱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힘써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쇼팽의 피아노 명곡 '녹턴', '에튀드' 중 '혁명', '나비' 등을 탱고의 어법으로, 그리고 피아졸라의 '겨울'과 쇼팽의 '겨울바람'을 결합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해석,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선사한다.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우린 결국 만났던거야

일 시 |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3: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의 | 첼리스트의 서재 010-5029-5807



전 세계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애니메이션 OST를 클래식 앙상블로 만날 수 있는 '지브리를 품은 클래식'.

Kranse Ensemble 리더, 첼리스트의 서재 공동대표, 어연희(어디서든 '연주

가능한 '하든 플레이스' 대표로 있는 첼리스트 이명료와 피아니스트 박민희, 아코디언리스트 심성훈, 플루티스트 신혜원, 바이올리니스트 이슬기가 대중들이 가장 사랑하는 지브리 대표곡과 우리에게 친숙한 클래식 명곡, 영화 OST, 팝송을 들려준다.

을숙도 청년예술공감

일 시 | 11월 28일(화), 30일(목)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예매 시 20% 할인)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5814



지역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는 을숙도문화회관 '청년예술공감'.

28일(제7회) 뮤지컬페인트 제2회 정기연주회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음악 콘서트로, 전통음악에 현대음악을 덧칠하여 다양한 창작음악을 소개해온 뮤지컬페인트만의 스타일로 경쾌하게 풀어낸 다양한 곡을 감상할 수 있다.

30일(제8회) D.U Chamber Orchestra '해설이 있는 동물의 사육제'

동물을 표현한 음악들을 소재로, 음악으로 동물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색 무대.

프로그램

아프리카 심포니, 삐죽왈츠, 송어, 백조의 호수 등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제78회 정기연주회

일 시 |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문의 | (사)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지난 2009년 창단된 후 부산의 민간 오케스트로는 처음으로 상근체제로 운영되며 폭넓은 연주활동을 펼쳐온 부산네오파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홍성택이 지휘하고

'2030 파워리더'로 선정된 피아니스트 정한빈이 협연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깊어가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러시아 작곡가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의 곡을 들려준다. 협연자 정한빈은 그랑프리 아카데미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최초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등 국내외 우수 공연장에서 리사이틀 및 협연무대를 가져왔다.

연극

연극 행쇼

일 시 | 9월 7일(목)-2024년 1월 7일(일) 평일 오후 7:00, 주말·공휴일 오후 2:30, 5:00 BNK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전석 3만5천원

문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유쾌하게 풀어낸 코미디극 '행쇼'.

대한민국 이훈율이 90%를 돌파하는 시대, 행복한 가정을 5년간 유지하면 50억을 주는 보험상품이 등장하면서 한 가족이 도전한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지만 이상하게 모이기만 하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 가족에게는 5년이라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지는데...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이 가족의 50억을 향한 유쾌한 소동을 통해 점점 붕괴되어 가는 우리의 가족문화를 되돌아본다.

- 작/교석기 • 각색, 연출/한성운
- 출연/천성운, 이재영, 박유진, 이예진, 강홍중, 이규하, 이윤, 최지윤, 한혜림 외

연극 난중일기에는 없다

일 시 | 9월 13일(수)-2024년 1월 1일(월)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
 문 의 |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영웅 이순신의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과 독특한 발상으로 실존 인물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연극 '난중일기에는 없다'. 이 작품에서 역사 속 영웅 이순신은 온데간데없다. 살기위해 버둥거리는 일본 무사 사스케에게 납치되고 고구마 하나에 치졸하게 목숨을 구걸하기까지 한다. 겉썩한 전라도 사투리로 육두문자를 남발하고, 후줄근한 옆집 아저씨 같이 삶의 넋두리도 내뱉는다. 이번 작품은 난중일기에는 없는 3일간 이순신의 행적을 통해 영웅이러기보다는 한 인간으로서 이순신 장군을 그려내며 관객들에게 공감과 감동을 전한다.

뮤지컬 레미제라블

일 시 | 10월 15일(일)-11월 19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2:00, 7: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8만원, R석 15만원, S석 12만원, A석 9만원
 문 의 | 클립서비스(주) 1577-3363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원작을 기반으로 작곡가 클로드 미셸 쇤버그와 작가 알랭 부브리 콤비의 손에서 탄생된 뮤지컬 '레미제라블'. 한국에서는 지난 2013년 초연, 2015년 재연을 통해 전국적으로 약 60만 명의 누적 관객을 동원하며 폭발적인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10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장발장 역에 민우혁과 최재림 등 오직 실력만으로 선정된 최고의 배우들이 관객과 만난다.

뮤지컬 시스터액트

일 시 | 11월 4일(토)-11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7:00, 12일 일요일 오후 3:00(10일-11일은 오후 2:00, 7:00 공연)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입장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문 의 | (주)공연마루 1588-0766



우피 골드버그가 주연한 동명의 영화를 뮤지컬로 제작한 '시스터액트'. 1970년대를 배경으로 클럽 가수인 들로리스가 우연히 클럽 주인이자 남자 친구인 커티스의 살인 장면을 목격한 뒤 증인 보호를 위해 수녀원에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한바탕 유쾌한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EMK의 첫 번째 인터내셔널 프로젝트로, '엘리자벳', '레베카', '웃는 남자' 등 뮤지컬계의 미다스 손 로버트 요한슨이 연출하고 뉴욕 현지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국내외 최정상 배우들이 출연, 전례없는 가장 힘하고 파워풀한 무대를 선사한다.

2023 제11회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일 시 | 11월 4일(토)-1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열린아트홀, 공간소극장, 나다소극장, 레몬트리소극장, 소극장6번출구, 액터스소극장,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일반 4만원 청소년 3만원 연극인 2만원
 문 의 | 부산소극장연극협회 010-3591-0626

부산지역의 소극장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부산소극장연극협회가 2013년부터 열어온 부산소극장연극페스티벌 2023년 무대. 올해는 극단 드림큰씨어터와 극단 판플, 극단 맥, 부두연극단,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극단아센, NMD 노마드 등 부산의 7개 극단과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경남), 극단 동승무대(서울) 등 총 9개팀이 부산소극장협의회에 소속된 소극장 7곳에서 공연을 펼친다.

극단 동승무대 '젊은 예술가의 반쪽짜리 초상'
 11월 4일(토)-5일(일) 열린아트홀 [개막작]



올해로 창단 25주년을 맞은 극단 동승무대의 무대. 예술가의 성장을 다룬 제임스 조이스의 1917년 소설 '젊

은 예술가의 초상'의 제목을 패러디한 작품으로, 지난해 제22회 월드2인극페스티벌 기획 초청작으로 선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극단 판플 '가정식 백만 맛있게 먹는 법'
 11월 7일(화)-9일(목) 나다소극장
 독특한 소재, 유머러스한 제목과 달리, 누군가에게 아무렇지 않게 던진 선의의 거짓말, 의미 없는 약속, 기억에서도 잊힐 값싼 동성심이 '폭력'과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품.
 한국연극협회 경남지회 '봄이 오면'
 11월 8일(수)-9일(목) 열린아트홀

밀양향교 분홍매화설화인 '조선선비와 매화 이야기'를 현대적 감성으로 창작한 작품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시리도록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경호와 두향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진다.

극단 맥 '유령'
 11월 10일(금)-12일(일) 소극장 6번출구

근대사상과 여성해방운동에 깊은 영향을 끼친 극작가 입센의 작품으로, 여기서 유령은 현재의 삶을 통제하는 가부장적 결혼제도, 종교, 도덕관, 관습 등 과거의 모든 약속들을 상징한다.

극단 드림큰씨어터 '란이'
 11월 11일(토)-12일(일) 열린아트홀
 2023 여름창작낭독무대에서 대상을 차지한 극

단 드림큰씨어터의 무대. 60세의 이른 나이에 치매에 걸려 치매 전문 요양 병원에 입원 중인 란의 굴곡 많은 삶이 펼쳐진다.

부두연극단 '한밤의 지하철 환상'
 11월 13일(월)-15일(수) 액터스소극장
 심야의 지하철 승강장을 배경으로 하는 단막극 두 편을 옴니버스 형태로 묶어낸 무대.

공연예술창작집단 어니언킹 'ㅅㅅㅅㅅ'
 11월 13일(월)-15일(수) 공간소극장
 한예총 연극대상, 한국연극예술대상, 동아연극상 특별상, 중앙문화대상 예술상을 수상한 희곡 작가 윤조병의 2인극.

극단 아센 '수녀가 아이를 죽이다'
 (원제: Agens of God)
 11월 15일(수)-17일(금) 하늘바람소극장
 종교, 기적, 구원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존 필미어의 신의 아그네스를 원작으로 한 무대.

NMD노마드 '소몰리에'[폐막작]
 11월 16일(목)-18일(토) 레몬트리소극장



두 남녀의 달콤하지만 씁쓸한 사랑과 이별을 담담하게 그려낸 로맨틱 연극.

연극 그 집 사람들

일 시 |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1층 2만원, 2층 1만원
 문 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진짜 같은 가짜 가족과 가짜 같은 진짜 가족의 보금자리 쟁취를 위한 한 판 승부 '그 집 사람들'.

늙은 댄서와 밤무대 가수, 만년 고시생과 단역 신세의 여배우는 하루 한 끼만은 밥을 같이 먹어야 한다는 할머니의 조건으로 하숙집에 함께 모여 산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할머니가 없다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할머니의 손자라는 이가 별안간 나타나 할머니의 행방을 묻는데...

연극 '그 집 사람들'은 '예술공장 두레'의 무대로,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신작 대본 공모에 당선되고 올해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배리어프리 뮤지컬 헬렌 앤 미

일 시 | 11월 18일-19일 토-일요일 오후 2:00
부산민주공원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부산민주공원 790-7412



장애인과 비장애인, 더 나아가서는 공연 소외 계층까지 모두가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뮤지컬 '헬렌 앤 미(Helen Anne Me)'.

생후 19개월이라는 어린 나이에 닥쳐온 장애로 시각, 청각, 언어 등 삼중 장애를 갖게 된 헬렌 켈러와 가정교사 앤 설리번의 이야기를 그린 이번 작품은 그들이 만나는 1886년부터 사회활동가로 성장하는 1900년대 초까지 실화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믿을 수 없을 만큼 진한 우정의 일대기가 감동을 전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점자리 플러티가 구비되어 있으며 공연 진행에 음성해설과 무대 수어 통역, LED 자막 등이 사용된다.

연극 지정

일 시 | 11월 23일 목요일 오전 11:00,
 오후 7:30, 24일 금요일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1만5천원(중학생 이상 관람)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3 공연유통협력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창제적 연극 '지정 Self-Designation'.

초연 2년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지정'은 초연 당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인지신경을 통제한다'는 내용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작품으로, 영화와 재학생 제니가 AGI(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정신과 의사 콜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심리를 조절하고, 세계적인 영화제를 목표로 작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성과 첨단기술과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진다.

'지정'은 초연 당시 세련된 연출과 탄탄한 완성도로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받은 바 있다.

예술집단C RED HEEL

일 시 | 11월 23일-24일 목-금요일 오후 6:30,
 8:30 **브라운헤즈 보수동**
 문 의 | 예술집단C 010-2591-0624



탈장르적이고 비언어적인 융·복합적 예술을 추구하며, '연극과 신체, 이미지와 신체'에 대한 고민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단체인 예술집단C가 선보이는 다원예술 'RED HEEL'.

여성을 향한 물리적, 심리적 폭력, 여성의 모성애에 대한 관점, 홀로죽으로서 여성, 여성성의 의미라는 모티브를 통해 다섯 명의 여성 이야기가 퍼포먼스 형식으로 펼쳐지는 이번 작품은 여성이라는 사회적 관습과 차별에서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평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여성들의 의지와 희망을 이야기한다.

- 작, 연출/황지선
- 움직임연출 및 안무/이용진
- 음악/한상훈 • 페인팅/박주호
- 출연/전성호, 이해영, 이은주, 김여진, 박소희

제9회 을숙도 명품콘서트
코믹마당극 호자전

일 시 | 11월 25일 토요일 오후 4: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1층 3만원, 2층 2만원(4세 이상 관람,
 예매 시 20% 할인)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11~4



가족의 소중함과 효의 진정한 의미를 마당극 특유의 익살로 풀어낸 코믹마당극 '호자전'.

'호자전'은 지리산 약초골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두 아들 감동이와 귀남이의 지극정성 효도 이야기로, 특히 부산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마당극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작품은 지난 1984년 창단된 후 웃음과 감동, 해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고 있는 큰들문화예술센터(큰들)가 지난 2010년 초연한 작품으로 지금까지 지역 순회공연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뮤지컬 맘마미아!

일 시 | 12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2일
 토요일 오후 2:00, 7:00, 3일 일요일
 오후 2:00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3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문 의 | (주)공연마루 1588-0766



스웨덴의 전설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으로 제작된 뮤지컬 '맘마미아!'.

전 세계 50개 프로덕션, 450개 주요 도시, 16개 언어로 공연되며 6,500만 명 이상이 관람한 뮤지컬 '맘마미아'는 2004년 국내 초연 이후 지난 19년간 공연되며 1,791회 공연, 210만여 명이 관람한 바 있다.

주인공 도나의 우정과 사랑, 딸 소피의 자아찾기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주는 무대로, 최정원, 신영숙, 홍지민, 김영주, 박준범, 김정민, 이현우 등 대체 불가 배우들과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새롭게 선택된 소피 역의 김한희, 최태이 등 최고의 배우들이 특별한 하루를 선사한다.

무용

영도, 발레에 빠지다 호두까기 인형

일 시 |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2:00,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전석 2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 속의 미녀’와 더불어 차이콥스키 3대 발레로 꼽히는 ‘호두까기 인형’.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 이후 현재까지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전세계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인 부산발레시어터가 발레공연 속에 녹아든 신기한 마술과 역동적인 현대무용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상상력 가득한 무대와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

지난 2014년 설립된 부산발레시어터는 부산을 기반으로 창작공연에서부터 클래식 전막발레까지 폭넓은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고 있다.

안윤지 연지무용단
 無發現(무발현) 無輝(무휘)

일 시 | 11월 26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안윤지 연지무용단 010-7795-6654



선운 임이조춤보존회 부산지부장, 국가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전수자, 제97호 살풀이춤 전수자, 경남무형문화재 제45호 밀양작약산예수재 전수자로 우리 전통춤의 전승에 힘쓰고 있는 춤꾼 안윤지가 이끄는 안윤지 연

지무용단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故 선운 임이조 선생의 10주기를 맞아 이매방류 임이조제 승무, 살풀이춤을 비롯하여 임이조제 입춤, 한량무, 교방살풀이를 선보인다.

- 사회/육근하
- 출연/안윤지, 권영심(특별출연), 김태호, 우한웅, 이석원

행사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일 시 | 6월 3일(토)-11월 18일(토) 매주 토요일 오전 9:00
 영도문화예술회관 4층 강의실
 입장료 | 무료(초등 고학년~중학생 선착순 30명 이내)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4
 클래식라디오 010-3881-3753



영도문화예술회관이 놀이와 체험을 통해 클래식 음악의 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하는 2023년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영도!! 예술 감상 어드벤처’. 이번 프로그램은 모두 다섯 기수로 나누어 진행되며, 기수별 네 차례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과 감성을 기르고 음악의 구조와 요소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다. 11월 11일까지는 제5기 ‘툼치툼치 타악이야기’가 펼쳐지며, 교육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11월 18일에는 가족의 날 기념으로 참여자 전원과 함께 즐기는 ‘애니메이션&영화 음악회’가 펼쳐진다.

11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일요일 오전 10: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매주 화요일에는 고전·낭만주의 특집을, 금요일에는 낭만주의 오페라를,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 드보르작 ‘루살카’(3~4일), 오펜바흐 ‘호프만의 이야기’(10~11일), 비제 ‘진주조개잡이’(17~18일), 생상스 ‘삼손과 데릴라’(24~25일) 콘서트/ 바그너·R.슈트라우스 가곡(7일, 11일), 베르디·조르다노 오페라 아리아(14일, 18일), 슈만 ‘피아노협주곡’·브람스 ‘교향곡 제2번’(21일, 25일), 베토벤 ‘교향곡 제3번’·R.슈트라우스 관현악(28일, 12월 2일)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무지크바움 음악홀
 입장료 | 월 4회 5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전문감상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음반 및 영상물 4,000장이 상을 소장하고 있는 전문 음악감상 홀이자 다양한 예

술 인문학 강좌도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인 무지크바움이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매주 수요일 두 차례, 르네상스 및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의 명반을 소개하고, 다양한 콘서트 실황 및 음악 페스티벌, 오페라, 재즈 및 월드뮤직, 예술영화 등을 영상으로 감상한다.

예필의 인문예술 렉처콘서트 상송과 서양화의 어울림

일 시 |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4:3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오페라바움 010-4205-1039



음악, 미술, 영화 등 3분야 예술인으로 등재된 예필 작가와 함께 떠나는 프랑스 예술기행, 음악, 미술, 영화, 詩, 역사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예술의 새 패러다임이 펼쳐진다.

프로그램

상송 영화/장밋빛 인생 (La Vie en Rose, 2007년)
 상송/파리의 하늘 아래(Sous le ciel de Paris, 에디트 피아프) 등 12곡
 서양화/명상하는 장미(Meditative Rose, 살바도르 달리) 등 8점
 프랑스의 詩/취하라(Enivrez-vous, 샤를 보들레르)

문화와 예술로 만나는 부산 11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6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6일(월) 음식으로 만나는 부산

• 강사/김미양(기억과 추억 사이 대표)

13일(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의 부산

• 시조창/김정석, 문금자
• 사투리 소설 낭독/이상우
• 사투리 시 낭송/박경홍, 배명화
• 노래와 연주/박기철, 배주연



16일(목) 낭송과 낭독 그리고 시조창과 시수다여행하는 카프카(이유선 쫓, 파란꽃, 2020)

20일(월) 장뤼크 고다르, 영화의 역사

•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27일(월) 장뤼크 고다르, 영

화의 미래

• 강사/김영광(영화평론가)

김옥균의 클래식뮤직 아카데미 세계의 클래식음악 연주회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30
영광도서 8층 문화홀 1관
입장료 | 2개월 10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살',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음악해설가, 시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뮤직 아카데미'.

불면증, 우울증, 치료에 뛰어난 클래식음악 감상과 더불어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연주회 실황을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 오페라 '돈 조반니'(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전막 감상
'앙드레 류' 뉴욕공연 실황
생상스-첼로 협주곡

불면증 치료 클래식음악에 대하여
음악영화 '코드'
사라브라이트만 콘서트 실황
아일랜드음악기행-켈트음악의 기원, 켈트명곡감상
쇼팽 '피아노 협주곡 2번', 브루흐 '스코틀랜드 환상곡'

제189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가을, 여행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11월 18일 토요일 오후 3:00
영광도서 9층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0149

• 출연/ 정길언 시인 외 회원&초대시인
• 초청 음악가/ 한승 피아니스트 김선택, 클래식기타리스트 고충진

전시

데이비드 호크니 & 브리티시 팝아트 1960s Swinging London

일 시 | 7월 21일(금)-11월 26일(일)
동구 문화플랫폼
문 의 | ㈜샤컴퍼니 465-4070

올리히 뷔스트전 도시산책자:올리히 뷔스트의 사진

일 시 | 7월 22일(토)-11월 5일(일)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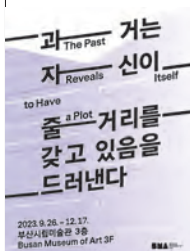
사진의 기록적 가치에 충실하며 절제된 관찰적 시각으로 독일 다큐멘터리 사진의 새로운 역사를 제시하고 있는 독일을 대표하는 사진가 올리히 뷔스트 사진전.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극장

일 시 | 9월 26일(화)-1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과거는 자신이 즐거리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일 시 | 9월 26일(화)-12월 1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부산시립미술관이 내년 분관 개보수공사를 앞두고 부산시립미술관의 25년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

1998년 부산지역 최초 공공미술관으로 문을 연 부산시립미술관이 개관 이후 도시정책에 적응하며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미술관으로 도약해온 역사를 만나볼 수 있다. 총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는 1980~90년대 국제화, 지방분권화와 같은 시대적 전환과 맞물려 전개된 시립미술관 건립 과정을 돌아보고 지역미술관의 역할과 세계 유명작가 전시 유치 등 다양한 주제로 전시되고 있다.

김주희 초대개인전 달콤한 휴식

일 시 | 11월 11일(토)-11월 26일(일) 갤러리 한스
※ 11월 11일(토) 오후 3:00 오픈링
문 의 | 김주희 010-8539-5175



그동안 개인전 및 단체전, 국내외 아트페어를 통해 작품활동을 펼쳐온 도예가 김주희 초대전. '휴식(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안락한 의자, 따스한 집, 수호신, 친근한 동물, 무한한 꿈을 지닌 자연과 같은 이미지 등 작가의 경험에서 비롯된 소재와 위로와 공감, 기쁨, 행복, 바람과 같은 다채로운 감정을 휴이라는 따듯하고 유연한 소재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달콤한 휴식과도 같은 시간을 제공한다.

BOOK



글로벌나무, 기후위기를 견다 -개똥철학책 10집

백년어서원 엮음 / 전망 / 1만 4,000원

‘지구온난화’라는 단어 대신 ‘지구열대화’가 등장했다. 기후 위기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상의 재난이 되고 말았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퍼부어진 폭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부산 원도심 동광동에 자리한 ‘글쓰기 공동체’ 백년어서원에서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글 모음집을 펴냈다. 백년어서원은 해마다 ‘개똥철학’이라는 책을 출간해 왔다. 자기 몸 안에서 빛을 만들어 내는 개똥벌레처럼 순수하고 근원적인 에너지를 의미한다. 참여하는 필자는 시민, 작가, 학생 등으로 다양한 주제들의 생각을 담아왔다. 2014년부터 폭력, 공존, 장소, 돈, 자유, 공부, 길, 바다, 죽음, 기술이라는 주제로 책을 엮었다. 올해로 10번째 엮는 책의 주제는 ‘기후’이다. ‘기후위기’는 위기를 넘어 현재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인간의 편리함만 추구해 온 문명의 결과는 암울한 미래로 이어지고, 인간은 물론 지구의 모든 생명체의 내일을 보장할 수 없게 됐다. 이 책에는 추락하고 있는 지구를 위해 작지만 확고한 목소리가 담겼다.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전 지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공생과 공존을 위한 인류의 행동과 실천을 고민하고 있는 글들이다.



컬러인사이드

황지혜 지음 / 크레타 / 1만 9,000원

2016년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공식 팬미팅에서 팬심 강한 아미는 BTS를 위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응원봉에 보라색 비닐봉지를 씌워 다 같이 흔들었는데, 깜깜한 공연장을 가득 채운 이 보라빛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이에 감사함을 표한 그룹의 멤버 뷔는 “무지개색에서 마지막에는 보라색이 있잖아요. 보라색은 상대방을 믿고 서로 사랑하자는 뜻인데, 제가 방금 지었어요. 그 뜻처럼 오랫동안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화답했다. 이후 보라색은 BTS를 대표하는 컬러가 됐다. ‘보라해 I PURPLE YOU’는 BTS와 아미 간에 ‘사랑한다’를 조금 더 의미 있게 표현한 언어로 탄생한다. 보라색이라는 컬러에 또 하나의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컬러는 감성을 자극하고, 개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시각적 언어이다. 일상, 예술, 브랜드, 디자인에서 접하는 컬러의 의미는 다양하다. 20년 차 CMF(컬러, 소재, 마감) 디자이너 황지혜가 냉철하고 독특한 시선으로 컬러를 설명한다. 빨강, 파랑, 초록, 노랑, 주황, 보라, 핑크, 검정, 하양. 이 컬러들의 시각적 특성, 심리적 영향,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 삶 속에 뿌리 깊게 박힌 컬러의 특성을 소개한다.



안드라스 쉬프 -음악은 고요로부터

안드라스 쉬프 지음 / 김윤미·윤종욱 옮김
산지니 / 2만 9,800원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피아니스트 중 한 명으로 꼽히며 클래식 애호가들의 애정을 한 몸에 받는 안드라스 쉬프의 책이 국내 처음으로 출간됐다. 2017년 독일어로 출간되었던 이 책은 음악 저널리스트 마르틴 마이어와의 대화와 쉬프가 여러 지면에 발표한 에세이로 구성됐다. ‘마르틴 마이어와 나눈 대화들’에서는 소련과 동구권이 건재하던 시절 헝가리에서 20대 중후반까지 보낸 쉬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망명 이후 가난한 음악가에서 세계적 거장이 되기까지의 여정이다. 에세이에서는 쉬프의 연주만큼이나 명료하고 단단한, 때로는 위트 있는 사유를 느낄 수 있다. 스포츠로 변질되어 버린 음악 콩쿠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글은 인상적이다. 연주란 손놀림 발놀림의 향연이 아니며 테크닉에 앞서 곡의 정확한 분석이 우선이고, 피아니스트가 아닌 피아노가 노래하게 해야 한다는 음악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드러난다. 바흐 해석의 권위자로 불리는 쉬프가 ‘골드베르크 변주곡’ 여행가이드가 되어 안내하는 30개 변주곡에 대한 해석도 수록됐다. 이 책을 통해 시대의 한계와 제약 속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온 피아니스트의 여정을 만날 수 있다.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진하는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에 참여할 총 58개의 작품이 선정되어 2024년 공연 매칭 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을 시작한다.

부산시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는 어릴적+예술(藝) 조합으로 '어릴 적부터 예술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아,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진하는 매칭 사업이다.

지난 8월 28일(월)부터 9월 10일(일)까지 '어릴적예(藝)' 사업에 참여할 학생 맞춤형 공연작품(1회 60분 이내) 공모를 진행, 문화예술분야 전문가와 부산시교육청 추천 전문가 총 9명이 참여하여 작품 심의위원회를 거쳐 음악(20개), 전통예술(12개), 무용(6개), 연극·뮤지컬(13개), 다원예술(7개) 등 장르별 균형을 고려한 58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12월 6일(수)과 7일(목) 부산문화회관 전시실과 사랑채극장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매칭데이를 통해 2024년 부산지역 청소년들의 공연관람 추천작품으로 본격 소개될 예정이다. 특히 선정된 58개 작품 중 와락심포니의 '같이 놀아봐예(豫)', 사운드팩토리판의 'Real K-pop', (사)아지무스오페라단의 청소년오페라 '사랑의 묘약', 국악그룹 도시락 '토끼의 간을 찾아라', 문화유목집단동행 '영화음악이야기-부산이 좋다, 영화가 좋다', 오오씨어터 가족뮤지컬 '황소가 된 게으름뱅이', 그룹즈 프로덕션의 '스냅(SNAP)', 극단 누리에 '줄 없는 나무인형', Dance Project EGERO(에게로) '사자·Who' 등 총 9개 작품은 부산시와 시교육청, (재)부산문화회관이 추천하는 학생 맞춤형 공연 BEST9으로 선정되어 매칭데이에서 쇼케이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칭데이에서는 BEST9 공연 쇼케이스 외 전체 58개의 참여작품 소개 및 매칭을 위한 단체별 부스 운영, 부산시립예술단을 비롯한 축하공연을 함께 진행한다. 매칭데이는 부산지역 청소년 예술교육공연에 관심있는 시민 누구나 관람가능하다. 오프라인 매칭데이에 참석이 어려운 교사, 시민들을 위해 각 작품의 영상과 자료들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부산시 문화포털 '다봄'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다.

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사업 어릴적예(藝)

58개 작품 선정 완료, 매칭 본격 추진



부산시립예술단 예술교육공연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특별한 혜택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종료**

7월 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10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종료**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 5일 오전 10:20, 12일 오후 2:00(월·화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금·일요일 공연에 한해 회차별 R석 20매)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종료**

7월 7일(금)-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초대권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 오페라 카르멘> **종료**

7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연극 <검정 고무신> **종료**

7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종료

8월 20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종료

8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종료

8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종료**

8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종료**

9월 1일(금)-2일(토)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종료

9월 16일(토)-17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6일자 공연 S석 20매)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위대한 유산> 종료**

10월 10일(화)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R석 40매)

뮤지컬 <마리 퀴리> 종료

10월 14일(토)-15일(일) 오후 2:00, 6: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종료

10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S석 30매)

음악을 통한 추억여행 <모던 에프터눈> 종료

10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초대권 20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1월 3일(금)-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11월 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가족을 위한 무용 동화 <여우와 돌고래>

11월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뮤지컬 <렛미플라이>

12월 15일(금)-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S석 20매)

연극 <벚꽃동산>

12월 22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3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VIP

연회비 : 10만원
초대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SPECIAL

연회비 : 5만원
초대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MEMBER

연회비 : 3만원
초대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톡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넥트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자문위원



권흥사
(주)반도건설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이사장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이근철
(주)삼정 회장



이용흠
(주)일신설계 회장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최삼섭
(주)대원플러스그룹 회장

* 부 회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 정문흠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조기중치과의원 원장
- 황성환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 김진홍 동우개발(주) 회장
-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 문민우 명인제약
-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 박혜빈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 성원기 삼강종합건설(주)
- 안금주 하나유치원 원장
- 안진우 경성대학교 교수
- 양은진 세무법인 인성
- 이경철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 이상수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 이성임 엘가 대표
- 이수민 굿엔프랜드주식회사
- 이에리카정애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 이현숙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 임은자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 정명선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 정민섭 (전)국회의장
- 정의화 속편한내과 원장
-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 조종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 한원우

※ 회원명 가나다순

■ 기본 예우

-  VIP 후원회 전용 룸 이용
-  대극장 좌석 네이밍
-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  회원패 증명
-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회원별 예우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 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 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배우자 무료	본인· 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 (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BPO Night Lab

2023. 12. 1. FRI 9: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하이든 • 교향곡 제94번 중 2악장
F. J. Haydn • Symphony No.94 in G major, Hob.I:94, 2nd mvt.

이문희 • 관현악을 위한 “부산의 시간”

- I.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밤
- II. 달맞이고개에서의 새벽
- III. 서면에서의 아침과 낮

장 프랑세 • 하이든의 주제에 의한 11개의 변주곡
J. Françaix • Onze variations sur un thème de Haydn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백승현 Seung Hyun Baek, Conductor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볼프강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2회 정기연주회

Wolfgang Amadeus Mozart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Wolfgang Amadeus Mozart

디베르티멘토, 괴헬번호 138

Divertimento in F major, KV. 138

플루트 협주곡 제2번, 괴헬번호 314

Flute Concerto No.2, KV. 314

교향곡 제41번, 괴헬번호 551 "주피터"

Symphony No.41 in C major, KV. 551 "Jupiter"

연 주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지 휘 백승현

플루트 조성현

2023.12.5. |화|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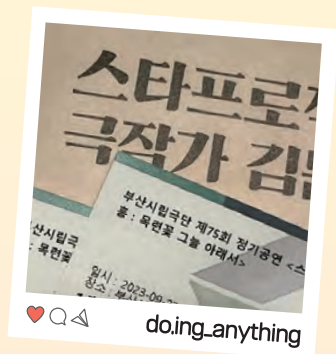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방문 인증 당첨자



♡ Q ◁ alwaysbc603



♡ Q ◁ do.ing.anything



♡ Q ◁ onedoodling



♡ Q ◁ ssuni_lee



♡ Q ◁ yuja_gram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11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12월호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COUPON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11. 30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COUPON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제34회 부산 청소년 합창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 Friendly Concert

11월 3일(금) 19:30

정관초등학교합창단	북구소년소녀합창단
사직여자중학교	범어사어린이합창단
정관소년소녀합창단	부산진구라온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11월 4일(토) 17:00

창원시립소년소녀합창단
김해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2023. 11. 3.FRI 7:30PM - 11. 4.SAT 5:0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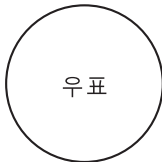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받는 사람

이름

주소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
.....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
.....

3. 개선해야 할 점은?

.....
.....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NOVEMBER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교류
음악회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지휘 이동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지휘 박경현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상임지휘자)

Program

- 경상북도 도립국악단
- 국악관현악 "태산"
- 서용석류 해금산조를 위한 국악관현악 "소유유(逍遊遊)"
- 오케스트라를 위한 메나리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 대금 협주곡 "아르티"
- 성악과 판소리를 위한 국악관현악 "이화우"
- 국악관현악 "美樂坊 miracle"



해금 최은정



대금 손한별



소프라노 김하정



소리 정선희

2023. 11. 16 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BMTMO SEASON 2023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R석(1층) 20,000원 · S석(2층) 10,000원 예매 www.bscc.or.kr 문의 051) 607-6000 (ARS 1번)

1953

1965

1978

1983

2005

2023 화승의 새얼굴

HWASEUNG

화승70주년,
100년을 향한 항해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얼굴로 새로운 미래를 엽니다.

HWASEUNG

화승 블루 스타(blue star) 컬러 :
인화를 모티브로 크리에이티브하면서 유연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화승의 가치를 담은 컬러입니다.



자동차부품



소재



화학



스포츠패션ODM



종합무역

오라토리오
ELIAS


FELIX MENDELSSOHN - BARTHOLODY

펠릭스 멘델스존 **엘리야**



지휘 **이기선**
소프라노 **정혜민**
메조소프라노 **김선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이광근**
부산시립합창단
나주시립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2023. 11. 23(목)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부산시립예술단 예매 www.bscc.or.kr

티켓 R석 20,000원 S석 10,000원 A석 5,000원

문의 607-6000(ARS1번)

NHK 다큐멘터리 '대항하'의 주인공

오카리나의 장인

SOJIRO

소지로

내한공연

Ocarina
Piano
Guitar
Percussion
Violin
Double Bass

2023. 11. 9.(목)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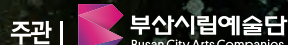
티켓 | R 4만원 S 2만원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주최 | 부산문화회관



주관 | 부산시립예술단
Busan City Arts Companies

부산시립예술단 연합공연

크리스마스 캐롤마스

2023. 12. 21. 목 ~ 23. 토

목 · 금요일 19:30 토요일 15:00, 19: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원작 | 찰스 디킨즈 재구성/작사/연출 | 김지용 작곡/편곡 | 백현주 지휘 | 이기선 안무 | 김미란, 홍충민 지도 | 백승현, 천경필, 임희준
무대디자인 | 황지선 의상디자인 | 박선미 분장디자인 | 이지원 조명디자인 | 조세현 음향디자인 | 박성수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장료 | R석 30,000원 S석 20,000원 A석 10,000원 4인가족 30% 할인(관람연령 만5세 이상) 예매 및 문의 |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 www.bscc.or.kr

☎ 셔틀버스 운행(무료) · 출발지 대연역5번출구 유엔교차로 방향 30M "7번가피자" 앞 → 문화회관 주차장 · 출발시간 | 문화회관행 | 월~금 19:00/19:30(공연 있는 날에 한함) | 대연역행 | 공연종료 후(1회 운행)